

향토사안내서

# 속초의 금석문







향토사안내서

속초  
의  
김석문

# C O N T E N T S

---

발간사(노광복 원장)	04
화보(사진 및 설명)	06
신흥사 부도군	08
삼연 김창흡선생 추념비	11
물재 유선생 유허비	12
학무정 및 주변 비석	14
설악산 산신제단	17
박지의 효자비각	18
수복기념탑	20
산악인 추모비	22
설악산지구전적비	24
속초읍장 박상희 송덕비	26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28
충훈탑	30
통천군 순국동지 충훈비	32
해경충훈탑	34

제1장 금석문의 이해	38
제1절 금석문의 정의	40
제2절 금석문의 종류	42
제3절 금석문의 가치	50
제4절 금석문 연구의 의미	51
제2장 설악산의 금석문	54
제1절 비선대	56
제2절 계조암	84
제3절 신흥사 부도군	102
제3장 관내의 금석문	120
제1절 학무정	122
제2절 유교 관련	126
제3절 근현대	136

# 밤 간 사

속초는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다양한 분야의 향토사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속초의 향토민속과 지명유래, 속초의 전통문화인 속초도문농요와 도리원 농악, 비교적 근대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실향민 정착사까지 체계적인 향토사 정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속초지역에 산재한 금석문의 조사 및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니다.

지방에서 금석문의 중요성은 역사 연구의 범주를 확대시킴과 동시에 더욱 풍부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금석문 원소재지의 연구는 당시의 인문·지리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위상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의 금석문 중 비선대와 계조암은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마멸과 부식이 심하여 판독이 어려운 글자가 많아 지금까지도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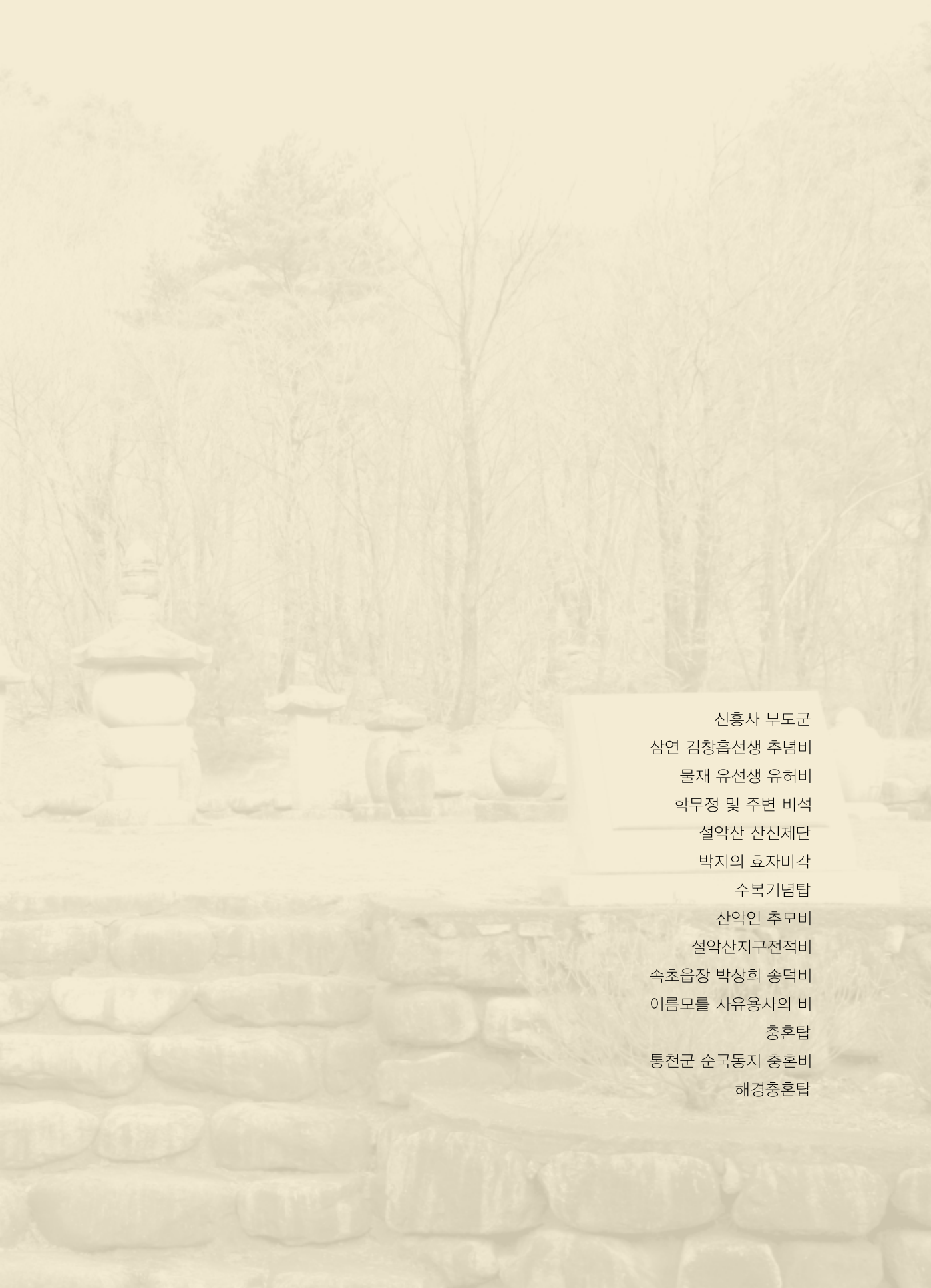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속초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09년 6개월에 걸쳐 속초 관내 금석문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멸과 부식이 심한 비선대 글자를 탁본하였고, 새롭게 발견한 시조도 함께 탁본하였습니다. 또한 비선대 및 계조암에 새겨진 이름을 분석하여 선생안을 마련해 지역 역사연구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다듬고 편집한 결과물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금석문의 중요성에 대한 환기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 화보 집





신흥사 부도군  
삼연 김장흙선생 추념비  
물재 유선생 유허비  
학무정 및 주변 비석  
설악산 산신제단  
박지의 효자비각  
수복기념탑  
산악인 추모비  
설악산지구전적비  
속초읍장 박상희 송덕비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충훈탑  
통천군 순국동지 충훈비  
해경충훈탑



## 이 신흥사 부도군

신흥사 고승들의 사리탑이 모여있는 곳을 신흥사 부도군이라 한다. 이곳은 원래 일주문 주변에 위치하였는데, 1996년 현 위치인 소공원 매표소 오른쪽 부지로 옮겨지게 되었다. 현재 신흥사 부도군에는 석종형 부도 10기, 원당형 부도 9기, 비석 6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용무당대선사비



대원당탑



## 삼연 김창흡선생 추념비

조선후기 유학자 삼연 김창흡선생을 추도하기 위해 건립한 비석으로,  
현재 노학동 노리 사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 ☪ 물재 유선생 유허비

물재 유희일선생(창원 출생)은 조선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대포동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로서, 그의 학덕과 효심을 흠모하여 그의 사후 사당을 건립하여 추모하였다. 그 후 사당건물이 퇴락하자 그 자리에 지금의 유허비를 세웠고, 이후 설악과출소 뒷편 잔디밭으로 옮겨졌다.







물재 유선생 유허비 측면부

## 04 학무정 및 주변 비석

학무정은 상도문동 송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말 성리학자 오윤환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모양이 육각이라 ‘육모정’이라 불렸으며, 정자 4면에 이름을 적은 현판과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이 남아있다. 정자옆으로는 1971년 세운 학무정 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忠孝朴公諱志誼之碑가 위치하고 있다.







忠孝朴公諱志誼之碑



학무정 기념비



## 05 설악산 산신제단

속초시민의 안녕과 산악인의 무사고를 기원하기 위해 1992년에 제단을 건립하였다.



## 06 박지의 효자비각

조선후기 이 고장의 대표적인 효자인 박지의는 조선 정조 23년 (1799년)에 태어나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마친 분으로, 그의 뛰어난 충성심과 효성을 이 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조정에 알려 고종 30년 (1893년)에 정려(旌闕)의 명이 내려 효자비각을 세웠다. 원래 효자비각은 학무정 근처에 있었으나 홍수로 유실되어 1937년 도문동 상도 문리 숙개골로 이전하였다.







孝子朴公志誼之碑

## 07 수복기념탑

수복기념탑은 실항민 도시 속초를 상징하는 탑으로서, 전쟁 기념비라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탑이라 할 수 있다. 이 탑은 1954년 5월 10일 건립되었는데, 1983년 4월 27일 강풍으로 모자상이 파손되었다. 전 시민들이 이를 슬퍼하여, 시민들의 성금과 시비지원으로 그 해 11월 17일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수복기념탑 전경



## 산악인 추모비

설악산 소공원에 위치한 비로서, 원로 산악인과 설악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여러 악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1993년 많은 산악인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 설악산 지구 전적비

설악산 소공원 내에 위치한 비로 6·25전쟁 때 설악산지구 전투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 설악산지구 전사문

여기 관동역 영산, 풍광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7년 5월이다. 그 해 2월에 삼척 부근에서 미군의 전형을 따라 북진한 육군,수도 사단(방호부대)이 4월에 관동평 산지형선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동곡포 부근에 도착한 북괴 제6-제 12 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영호군이 정봉을 관습에 뛰어넘고 노후로 이르러서 작고한 항해 공격해 갔으나, 그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욱이 높은 봉, 깊은 골이 험준하여 식량과 탄약이 마져 되어가지 못하여 육군 고추가 계속 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 보급을 받아 가미 보급을 극력하고, 공격 개시 5월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 인제에서 아전부리로 잠습한 공중군이 위험하므로 수도 사단은 그 곳으로 달려 가 그 적을 막아 낸 다음, 반격을 개시하여 5월 말에 원사천리로 이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 가슴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영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의 거리를 위해 한몸 바친 젊은이의 빛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정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 돌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설악산 지구 전적 비문

## 10 속초읍장 박상희 송덕비

초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의 공덕비이다. 1958년 9월에 건립되어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다가, 현재 내물치리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1992년에 건립된 신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朴祥喜 邑長 頌德碑 新碑



朴祥喜 邑長 頌德碑 舊碑

## 1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설악산 소공원에서 비선대 방향으로 약 2.4km 지점에 세워진 비로 흔히 '무명용사의 비'로 불리워진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과 맞서 싸운 순국장병과 군번 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 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해 1965년에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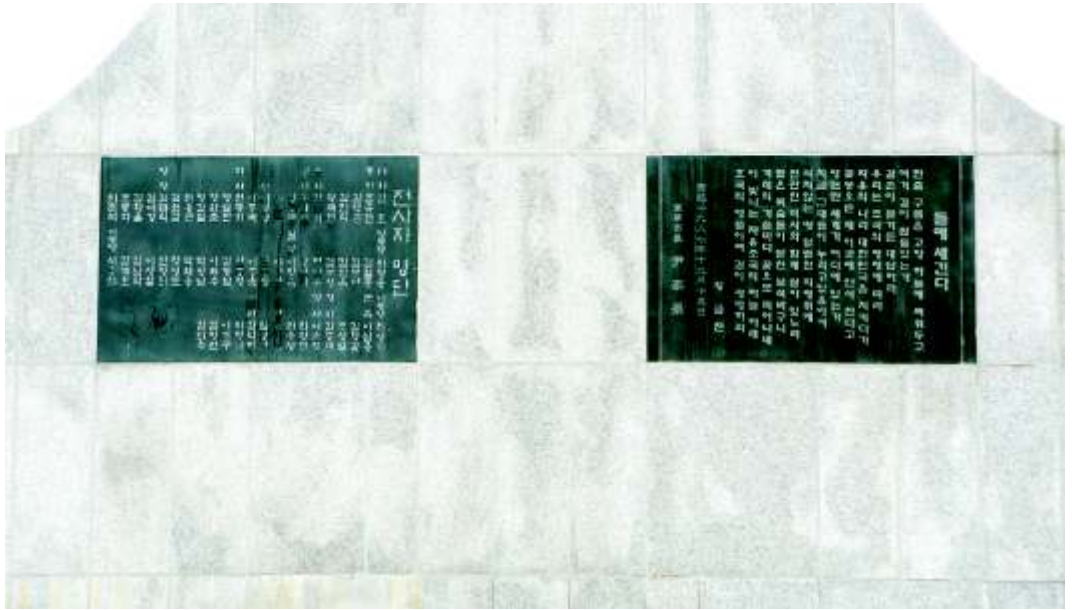
이름모를 자유용사의 비

## 충혼탑

도문동 중도문2리와 하도문리 경계인 신문덕에 위치하고 있는 비로서, 속초시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해 1987년 건립되었다.







충훈탑 비문 및 전사자 명단



충훈탑 부조

##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영랑호 동남쪽에 위치한 비로서, 통천군 출신 인사 중 북한 공산도당과 싸우다 피흘린 반공 전사자 및 한국전쟁 전몰용사 140명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영북지구 통천군민회에서 1969년에 건립하였다.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측면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 비문

## 12 해경충혼탑

장사동 사진리 환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 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작전 임무를 수행하다 꽃다운 젊음을 바친 해양경찰대원의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해양경찰대에서 건립하였다.





해경총훈탑 측면

금서  
문<sup>의</sup> 이해





제1장 금석문의 이해

제1절 금석문의 정의

제2절 금석문의 종류

제3절 금석문의 가치

제4절 금석문 연구의 의미

# 제 1 장

## 금석문의 이해

금석학의 연원은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송대(宋代) 구양수(歐陽脩)의 집고록(集古錄), 조명성(趙明誠)의 금석록(金石錄)이 나온 바 있고 이후 많은 저록들이 나왔다. 그러나 금석학이 하나의 학문분과적 성격을 띠면서 크게 발전한 것은 청대(清代)에 들어와서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옹방강(翁方綱), 왕창(王昶), 손성연(孫星衍), 엽창치(葉昌熾), 조지겸(趙之謙) 등 금석에 관한 저록을 남긴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금석문의 분류에서 각비의 현상기록, 탁본과 비첩에 관한 기록들을 남기며 비 자체에 대한 분석적 연구 및 서체 역사적 사실등과의 관련된 연구에 괄목할만한 업적을 남겼다.



이러한 청의 금석학 성행은 바로 조선에 영향을 미쳤다.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조선후기 금석학자들은 금석자료의 조사 과정이나 조사 및 연구결과의 서술에서 매우 근대적인 학문방법을 취하고 있다.

금석문에 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연구가 미흡한 분야이다. 따라서 지역사에서 우선 조사 및 자료의 검토 그리고 해석 등의 과정에서 역사학의 기초 자료로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 제1절 금석문의 정의

---

금석문이란 금문(金文)과 석문(石文)으로 나누어진다. 금문은 금속제의 용기, 악기, 무기, 조상(彫像), 범종(梵鐘) 등에 주출(鑄出)되었거나 새겨진 문자이며 석문은 석재(石材)의 비, 묘지 등에 새겨진 문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금석문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석문이라고 하는 광의의 의미는 금문, 석문뿐 아니라 토기에 기록한 토기 명문(銘文), 잘 다듬은 나무 조각에 쓴 목간(木簡)의 기록, 직물에 쓴 포기(布記), 고분의 벽에 붓글씨로 기록한 묵서명(墨書銘), 칠기(漆器)에 기록한 묵서, 기와나 별돌의 명문(銘文) 등을 포괄하여 부르기도 한다.

역사를 연구할 때 기본 자료는 종이로 만든 서책(書冊)에 기록한 문헌 자료이다. 넓은 의미의 금석문은 이러한 문헌자료, 그리고 문자 기록이 없는 고고학 발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문자 기록을 의미한다.

명(銘)이란 원래 돌이나 금속에 새기거나 두드러지게 양각(陽刻)한 글 혹은 비문(碑文) 가운데 운문(韻文)을 가리킨다. 따라서 종이에 기록한 서책이나 종이문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비석이나 기물(器物) 등은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문헌기록이 이루어진 서책이나 종이 문서가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다른 기능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록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데 비해, 금석문의 기록 대상물은 기록의 매체라는 것 외에 별도의 용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일단은 종이로 만든 문서나 서책이 아닌 물건, 즉 돌, 금속, 나무, 직물, 토기·기와 같은 소성품 등에 기입한 전통시대의 문자나 기호, 그림을 금석문이라 한다.



## 제2절 금석문의 종류

---

### 1. 비문(碑文)

돌을 다듬어서 세운 비석에 새긴 문장으로 금석문을 대표한다. 기록된 정보량이 많고 남아 있는 숫자도 비교적 많다. 비석은 비(碑)와 갈(碣)로 나누기도 하는데, 비는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다듬은 것으로 5품 이상 고위 관료만이 세울 수 있었다. 같은 자연석의 한쪽 면만을 다듬어서 둥글게 만들었으며 6품 이하가 쓰는 비석이었다.

하지만 이 둘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통용되는 예가 많았다. 비와 갈 모두는 중국 한(漢)나라 때 묘비(墓碑)로 부터 출발하여 발달했으며, 원래는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않은 백비(白碑)였다가 역시 한나라 때부터 죽은 이의 공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비석은 내용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한다.

가. 선정(善政) 및 송덕비와 관련되는 금석문

- 1) 송덕비 : 덕을 후세에 까지 길이 빛내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2) 선정비 : 벼슬아치의 바르고 옳은 양치(良治)를 칭송하는 비이고  
공적비는 쌓은 공로나 수고 등 실적을 기록한 비이다.

나. 조상이나 명현의 업적을 적은 금석문

- 1) 유허비(遺墟碑) : 종족의 조상이나 명현, 석학의 자취가 있는 곳에 그 업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2) 유적비(遺蹟碑) : 건물이나 사변 등의 자취가 남아 있는 장소에 세우는 비로 ‘遺跡碑’로도 쓴다.
- 3) 사적비(事蹟碑) : 사회나 국가를 위한 일의 실적이나 공적을 기록한 비로 ‘事蹟碑’로도 쓴다.
- 4) 기지비(基址碑) : 특정 지역, 종족의 토대와 기초가 되는 곳을 기리는 비이다.
- 5) 유지비(遺址碑) : 현재는 빈터이나 옛날에는 축조물이 있음을 알리는 비이다.

다. 효열비(孝烈碑)

- 1) 효부비(孝婦碑) : 부녀자가 절개를 굳게 지킨 것을 칭송한 비이다.
- 2) 여표비(閭表碑) : 효열비를 마을 앞 길가에 세운 비이다.
- 3) 열녀비(烈女碑) : 고부, 모녀, 자매 등 일문에서 절개를 지킴을 칭송하는 비이다.

라. 기념비(記念碑, 紀念碑)

- 1) 전적 승전비(戰績 戰勝碑) : 전쟁이나 변란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비이다.
- 2) 수호비(守護碑) : 성이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 것을 기념하는 비이다.
- 3) 중창(重創), 중수비(重修碑) :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것을 다시 고쳐서 사용한 내용을 기록한 비이다.
- 4) 대첩비(大捷碑) : 적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이 밖에도 사건이나 사변, 경축, 유서 깊은 사적지 등과 관련하여 여러 종류의 비가 있다.

마. 추모위령비(追慕慰靈碑)

- 1) 순국비·탑(殉國碑·塔) :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기리는 비(탑)이다.
- 2) 충혼비·탑(忠魂碑·塔) : 국난을 당하여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을 기리는 비(탑)이다.
- 3) 추모비(追慕碑) :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4) 위령비(慰靈碑, 塔) : 죽은 혼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비(탑)이다.

바. 기타

- 1) 정계비(定界碑) : 나라의 국경을 정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2) 노정비(路定碑) : 길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3) 탑비(塔碑) : 사리나 불골(佛骨) 또는 공양, 보존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4) 마애명(磨崖銘) : 석벽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둔 것을 말한다.



또한 제단비(祭壇碑, 제사를 지내는 사단)와 비슷한 것으로 단도비(壇道碑, 제단을 쌓은 경위를 적은 비)가 있다.

## 2. 불상명문

현재 남아 있는 우리 나라 금문(金文)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상 명문이다. 일반적으로 금동불이나 철불의 광배 뒷면을 이용하여 불상을 조성하게 된 연기(緣起)를 음각하여 기록하지만, 일부 석불에도 기록이 남아 있는 예가 있다.

## 3. 묘소

묘소와 관련되는 금석문은 다음과 같다.

### 가. 신도비(神道碑)

사자(死者)의 묘명(墓路), 즉 신령의 길이란 뜻으로 왕이나 종2품 이상의 관리 및 석유(碩儒)에 한하여 왕명으로 무덤 앞 또는 묘소로 가는 길목에 죽은 이의 사적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 나. 묘갈(墓碣)

죽은 이의 세계(世系), 행적, 생몰, 장례일, 자손의 개황 등을 기록하며 무덤 앞에 세우는 묘표의 작은 비로 ‘비(碑)’는 방형(方形)이고 ‘갈(碣)’은 원형으로 다소 작은 편이다.

다. 묘갈명(墓碣銘)

묘갈의 글에 운문으로 된 명(銘)을 붙인 글이다.

라. 묘표

무덤 앞에 세우는 표석[表石]로 죽은 이의 관직과 명호(名號)를 전면, 사적과 덕행을 후면에 기록한다.

마. 묘표(墓標)

무덤 앞에 세우는 표시로 돌이나 꽃말을 말한다.

바. 묘지(墓誌)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죽은 사람의 원적, 성명, 사적, 생몰일자, 무덤의 방향 등을 돌에 새겨서 무덤 앞에 묻는 돌이다.

사. 묘지명(墓誌銘)

묘지(墓誌)의 글에 운문으로 명을 붙이는 글이다.

아. 능묘비(陵墓碑)

왕이나 왕비 등의 사적이나 행적을 기록한 비이다.

#### 4. 종명(鐘銘)

금문 가운데 불상 명문과 함께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종에 새긴 종명이다. 요즘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불교식 범종이나 기독교식 종을 제작할 때 그 종교의 교의(教義)를 상징하는 문양과 함께 종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주조하게 된다. 역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들을 보면 제작 시기와 유래, 금속 원료의 양, 책임자, 실제 종을 만든 장인(匠人), 제작비를 분담한 사람의 직위와 명단을 적고 있다.

#### 5. 도검명(刀劍銘)

칼에 새겨진 명문의 예는 많지 않고, 조선시대 도검은 그나마 간단한 길상구(吉祥句, 행운을 가져오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형식적인 문구)나 별자리 그림을 상감처리(표면에 오목한 홈을 만들고 다른 색깔의 재료로 그 안을 채워넣어 문양이나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한 정도가 많다. 하지만 고대 동아시아의 도검 가운데는 꽤 많은 양의 정보가 명문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는 백제의 칠지도(七支刀)가 대표적이다.



## 6. 목간(木簡)

잣대 혹은 막대 모양으로 다듬은 나무 조각에 문자, 그림을 적어 의사를 전달한 것이 목간이다. 목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음각하거나 다시 그 홈에 목서를 덧씌운 예도 있다. 잣대 모양은 앞, 뒷면에 문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막대 모양은 네 면을 모두 활용하기도 한다. 목간은 종이 발명되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 주로 쓰였지만, 그 후에도 나무 재료의 특성 때문에 표찰, 패찰(牌札) 등의 용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그 종류를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면 일반 기록용, 문서로 쓰인 것, 물품을 운송할 때 내역을 기록하여 팔려 보낸 것, 제사나 의례를 거행할 때 사용한 것, 낙서 등 기타 용도의 목간으로 크게 나뉜다.

## 7. 토기명문

토기는 주로 음식물을 담아 먹거나 조리하고, 저장하기 위해 쓴 용기이다. 신석기시대 이후 중요한 생활용품의 하나였으며 부(富)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 수십 점의 토기를 무덤에 부장하기도 했다. 불교식 장례를 치른 다음에는 골호(骨壺), 즉 뼈 가루를 담은 용기로 쓰기도 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수용품을 담거나, 그 자체가 제수용으로 바쳐지기도 했다.

## 8. 와전명(瓦塼銘)

기와는 지붕에 있는 건축 부재이고, 전돌은 무덤을 쌓거나 요즘 보도블록처럼 바닥에 까는 재료이다. 기와는 암키와의 내면(불룩한 면)과 배면(오목한 면), 그리고 숫막새 기와의 막음 부분에 명문을 음각 혹은 인각(印刻)한다. 전돌은 주로 측면에 명문을 양각 혹은 음각해서 넣었다.

전통시대에 기와, 전돌은 왕궁, 관청, 사원 같은 고급 건물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건물과 무덤의 용도, 주인공을 알려주는 문자를 와전에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간단한 문구로 구성되지만, 출토 유구(遺構)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9. 기타

이밖에 암벽에 글자를 새기거나 성벽을 쌓은 성돌 등에 새긴 석각(石刻), 석탑의 탑신부에 각자(刻字)한 석탑기, 금속판이나 석판에 탑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적어 탑 안에 넣은 탑지(塔誌), 각종 인장의 인문(印文), 동경(銅鏡)의 명문, 벼루 등 각종 용구에 적힌 묵서 혹은 각자명, 사리함, 청동합 등 각종 금속 제품에 새긴 금문, 낙랑 유물로서 문서 봉함(封緘)에 사용된 봉니(封泥)의 명문, 칠기의 묵서명 등이 있다.

## 제3절 금석문의 가치

---

금석문은 당대 사람이 직접 기록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한번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친 후대의 자료는 그 작성자나 시대적 조건에 따라 왜곡과 윤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대의 자료를 1차 자료, 후대 자료를 2차 자료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석문은 당대 사람이 직접 글을 짓고 써서 남긴 유물이므로 1차 자료이고 역사 연구에서 1급 자료이다.

하지만 금석문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문장을 짓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사실의 과장과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면 그 이면에 감춰진 사실을 읽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금석문은 후대의 문헌사료보다 솔직한 성격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석문은 어떤 인물이나 개별 사건, 사물에 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문헌사료가 한 시대,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서술이라는 점과 대비되는 측면이다. 따라서 금석문이 전해주는 사실을 곧바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무엇보다 금석문은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노출되어 마멸과 부식이 심하고, 출토 유물의 경우도 훼손이 심하여 판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큰 문제이다.



## 제4절 금석문 연구의 의미

역사연구에 있어 기록은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전에 쓰여진 책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금석문은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가히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대의 금석문이 발견될 때마다 역사책이 새로 쓰여질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다.

금석문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고대사의 논쟁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광개토대왕비의 경우 고구려의 대표적인 정복군주였던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날 중국 지린성 지안현 통거우에 6.39미터의 거대한 자연석 4면에 1.775자에 이르는 방대한 명문을 새겨 놓았다. 이것은 고대 동북아시아 최대의 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비석의 경우 1880년대 처음 발견이 된 이후로 비문과 관련된 논문만 500편이 넘으며,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한국과 중국 일본 3국간의 고대 대외관계 정립을 위해 많은 논쟁이 오고 갔다. 논쟁은 아직까지도 비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끝나지 않았지만 비문은 당시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있는 귀한 자료이다.

하지만 1차 자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역사해석의 오류로 인해 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예로 광개토대왕비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제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임라일본부설이 제기되기도 했다는 사실로 볼 때 올바른 연구자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금석문은 서책보다도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속초 지역도 비선대나 계조굴에 많은 각자가 보인다. 특히 비선대에는 윤순(尹淳)이 쓴 ‘비선대(飛仙臺)’라는 각자가 있다. 아쉬운 것은 시간이 가면서 마모되는 속도가 빨라 이제 거의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아무쪼록 금석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각자를 복원하는 일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  
리  
아  
산<sup>의</sup> 금석문

尹京晚

幸冀

金琴元

金昌

金載

李

제2장 설악산의 금석문

제1절 비선대

제2절 계조암

제3절 신흥사 부도군

# 제2장

## 설악산의 금석문

### 제1절 비선대

비선대는 소공원에서 남서쪽으로 2.3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암반으로 아래에 있는 와선대(臥仙臺)에 누워서 경치를 감상하던 마고선(麻姑仙)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비선대라고 한다.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자연의 오묘한 이치를 감상했다. 암반에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특히 비선대라고 쓴 각자(刻字)가 대표적이며 초서체에 크기는 약 1미터이다, 이것은 때로 양사언(楊士彦)이 쓴 것이라고 하나 사실이 아니고, 윤순(尹淳)이 쓴 것이라고 《양양읍지(襄陽邑誌)》에 기록되어 있다. 설악산은 신라시대부터 산천유람장소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그 중 비선대에는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상당수는 관직에 있는 사람들로 파악된다. 이 각자 중에는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불운의 혁명가 김옥균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아버지가 양양 부사로 부임할 때 함께 이곳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창흡(金昌翕)은 비선대(飛仙臺)에 와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瓊臺府金潭

石扇排青峰

融時備衆妙

豈惟勢奇壯

경대(瓊臺)같은 맑은 물을 굽어 보니

부채같은 청봉(靑峰)이 그곳에 펼쳐졌네.

이곳이 생길 때 묘리(妙理)를 갖추었던가?

그 세(勢) 어찌하여 이리도 기장(奇壯)한가!

그외에도 맑은 시인들의 시가 전해온다.

본 조사는 비선대를 다녀간 사람들의 ‘선생안’을 작성하고, 그들의 행적을 재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 비선대 (飛仙臺)

---



기암 절벽 사이에 한 장의 담(못)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계곡쪽에 서는 미륵봉(일명 장군봉), 형제봉, 선녀봉이 있고 미륵봉 등허리에 금강굴이 보인다.

와선대에 누워서 주변 경관을 감상하던 마고선이 이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다하여 비선대라고 부른다.

양양의 현산지를 살펴보면 비선대 세 글자는 판서 윤순이 각자하였다고 한다.

윤순(尹淳, 1680년~1741년)은 조선시대 후기의 서예가, 문신이다.  
자는 중화(仲和), 호는 백하(白下), 학음(鶴陰),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1713년(숙종 39년) 문과에 급제하여

1721년(경종1년) 교리

1722년(경종2년) 헌납, 수찬, 이조좌랑

1723년(경종3년) 응교

1724년(경종4년) 1724년(영조 즉위년) 수원부사, 승지, 대사성,

도승지, 이조판서, 공조판서

1730년(영조6년) 평안도 관찰사, 한성부 판윤, 함경도 관찰사,

경기도 관찰사

1741년(영조17년)에 평안도 감사로 가다가 졸하였다.

당시 필법(筆法)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서 사람들이 그의 필법을  
본받는 이가 많았다. 이름난 서예가로 송나라 미남궁체(米南宮體)를  
완전히 터득했다. 서적으로는 <백하서첩(白下書帖)> <고려산적석사비  
(高麗山積石寺碑)> 등이 있다.



## 관찰사 박종길(朴宗吉 1783)

---

字(자)는 목여(穆如), 1827(순조27) 문과에 급제하였다.

1839년(헌종5년) 사간원대사간

1846년(헌종12년) 강원도 관찰사

1874년(고종11년)에는 孝行(효행)이 지극하여 旌閭(정려)가 세워졌다.

- 내용 : 아버지가 부임지에서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베어서 피를  
먹여 다시 살아났다가 운명하자 천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시신을 옮겨다가 장사를 지냈고, 3년을 여막에서 지냈다.





## 이상악 (李商岳)

---

본관 전주. 자 교백(喬伯)

영조(英祖) 42년 (1766) 병술(丙戌) 정시3(庭試) 병과(丙科) 1위

1767년(영조43년) 정언

1768년(영조44년) 사서, 부수찬, 문학

1769년(45년) 검사서

1771년(영조47년)에 응교

1776년(정조 즉위년) 성균관 대사성으로 역임하였다.



## 순사 조병헌(巡使 趙秉憲)

---

본관(本貫) : 풍양(豊壤)    자 : 윤문(允文)

거주지(居住地) : 경(京)

1835년(헌종1년)에 조병헌 가자하였다.

1837년(헌종3년)에 형조판서, 성균관 대사성

1841년에는 이조참의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 김계하 (金啓河, 1759~1834)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경천(景天)이며, 정진(鼎鎭)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써, 1798년(정조 22) 춘당대친시에 생원으로  
제술 부분에서 1등함으로써 전시에 직부(直赴)하였다.

1807년(순조 7) 홍문관부교리가 되고,

1808년에는 서장관으로 청에 건너가 양국간에 현안 문제를 수습하고  
돌아왔다.

1822년(순조22년) 의주 부윤

1826년(순조26년) 개성부 유수

1827년에는 함경감사가 된 인물이다.



## 지부 강시환(知府 姜時煥)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 자는 성여(聖汝). 아버지는 노(櫟)이다.

1789년(정조13)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11년(순조 11) 양양부사와 장령을 지내고

1825년 헌납이 되었다.

1836년(헌종 2) 부사직으로 있으면서 순조비 김씨의 수렴청정을 비난하고, 성학(聖學)의 권장, 빈민의 구제, 기강의 확립, 재용(財用)의 절약, 군정의 충실, 과거제 폐단의 혁파 등 6개 조목의 시정책을 상소하였다가 국정을 모독하였다는 죄로 절도(絶島)에 유배당하였다.

1840년에 헌종이 직접 정사에 임하게 되자 풀려났다.





## 이윤식(李允植)

<조선왕조실록 순조 33권, 33년(1833)>

목사·군수·현감 등의 실정과 선정에 대해 암행 어사 김기만이 서계하다. 또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조연(金祖淵), 목천 현감(木川縣監) 성헌증(成憲曾), 보은 군수(報恩郡守) 이윤식(李允植), 문의 현령(文義縣令) 한여(韓礪)의 잘 다스린 실상을 말하니, 김조연에게는 새서 표리(璽書表裏)5883)를 내려 주고, 성헌증에게는 숙마(熟馬)를 주었으며, 이윤식과 한여는 승급시켜 주었다.

관찰사 홍경모(觀察使 洪敬謨)

---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수(敬修), 호는 관암(冠巖)·운석일민(耘石逸民). 할아버지는 이조판서 양호(良浩)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낙원(樂源)이며, 어머니는 사간원정언 이존원(李存遠)의 딸이다.

정조 때 동몽교관(童蒙教官)으로 경연(經筵)에서 〈효경〉을 강론했고, 오언시(五言詩)를 지어 정조로부터 서책과 패향(佩香)을 하사받았다.

1816년(순조 16년) 별시문과에 급제했으며, 그해에 시독관(侍讀官)이 되어 홍문관에 장서가 없음을 개탄하고 왕에게 청해 〈예기〉·〈주역〉·〈퇴계집〉 등을 간행했다.

그 뒤 대사성·이조참의에 올랐으나 1824년 관리 등용에 잘못이 있었다 하여 법성첨절제사(法聖僉節制使)로 좌천되었다.

1825년(순조25년) 강원도 관찰사

1826년부터 이조참판, 사간원대사간, 공조판서, 형조판서 사헌부 대사헌을 하였다.

1835년(헌종1년)부터 함경도관찰사, 예조판서, 한성부 판윤, 형조판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 서기보(徐冀輔)

---

<조선왕조실록 순조 18권, 15년(1815)>

춘당대에 나아가 경과 정시를 설행하여 문과는 이시원, 무과는 서기보 등을 뽑았다.

춘당대에 나아가 경과 정시를 설행하고 이어서 방방(放榜)하였는데, 문과는 이시원(李是遠) 등 20인을 뽑았고 무과는 서기보(徐冀輔) 등 4백인을 뽑았다.

철종 때 강서현령을 역임하였다.





## 윤효식(尹孝植)

---

<조선왕조실록 정조 46권, 21년(1797)>

성균관 유생의 제술(製述)을 성균관에서 시험하여,  
진사 윤효식(尹孝植)에게 진시(殿試)에 응시하도록 허락하였다



## 김병기(金炳基)

---

김병기(金炳基)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옥천군수, 강릉부사, 통정대부 등을 지냈다. 김옥균(金玉均)의 양아버지이다. 이조참판 김광현(金光炫)의 8대손으로 증조부는 이조참의 김이적(金履績), 할아버지는 이조참의 김후순(金厚淳), 아버지는 광주목사 김교근(金喬根)이다.

본관은 안동.

1852년(철종 3) 광릉참봉을 지냈다.

1856년(철종 7년) 옥과현감으로 부임하였으며,

금성현령·옥천군수·강원도 양양부사·강릉부사·가평현감 등 주로 외직을 담당하였다.

1884년(고종 21년) 김옥균(金玉均)의 아버지 부호군(副護軍) 김병기(金炳基)와 본래의 생부(生父) 김병태(金炳台) 등 모두 삭탈관직(削奪官職)을 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 자 옥균 (子玉均)

조선의 문신이며 구한말의 정치가·혁명가이다. 급진개화파로서 갑신정변을 주도하였다.

안동 김씨 김병태(金炳台)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력한 세도가 출신으로 6세 때 김병기의 양자로 들어갔고, 1872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료로서 출세의 길이 열려 옥당승지정언(正言)을 거쳐,

1874년(고종11년) 홍문관 교리

1882년(고종19년) 승정원 부승지

1883년(고종20년) 이조참의를 거쳐 호조참판을 지냈다.



## 고성군수 윤자일(尹慈一), 통천군수 안효근(安孝根)

<조선왕조실록 철종5년(1854)>

경상우도 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 이종순(李鍾淳)을 소견(召見) 하였으니, 거제부사(巨濟府使) 이복희(李宓熙)·전진 부사(府使) 이만겸(李晩謙)·초계군수(草溪郡守) 정환승(鄭煥升)·전진 군수(郡守) 정우영(鄭友永)·금산 군수(金山郡守) 이병선(李秉先)·고성 현령(固城縣令) 박광진(朴光鎭)·전 현령(縣令) 이민수(李敏樹)·개령 현감(開寧縣監) 정기흥(鄭基興)·사천 현감(泗川縣監) 안종호(安鍾鎬)·전진 진주 목사(晉州牧使) 조철림(趙徹林)·전 성주 목사(星州牧使) 윤자일(尹滋一)·전 창원 부사(昌原府使) 구재선(具載善)·전 김해 부사(金海府使) 임익상(任翼常)





## 이광정(李光正)

---

본관은 우봉(牛峰), 초명은 이광정(李光正), 자는 경복(景服)이다.  
호조 참관 이채(李采)의 아들로서, 중부(仲父)인 목사(牧師) 이화(李禾)에게 입양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교관으로 있던 순조 13년(1813) 증광별 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예문관 검열, 홍문관 정자 등을 지내고 1824년 의주 부윤으로 승진하였고 1829년 승지를 역임하였다. 1834년 진하사(進賀使)의 부사로 북경에 다녀왔다.

1837년 경상도 관찰사

1839년 강원도 관찰사

1841년 한성부 판윤, 대사헌

1842년 호조 판서

1843년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다.

철종 1년(1850) 고령으로 치사하고 봉조하(奉朝賀)에 올랐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 은폭상하 선인비와 (銀瀑上下 僊人飛臥)

---

비선대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조.

銀瀑上下

僊人飛臥

은빛 폭포 위로

누웠던 신선이 날아오르네.



## 정기세 (鄭基世, 1814~1884)

자(字)는 성구(聖九), 호(號)는 주계(周啓).

영의정 원용(元容)의 아들이며, 우의정 범조(範朝)의 아버지이다.

1837년(헌종 3) 정시(庭試)에 병과로 급제, 충청우도 암행어사를 거쳐, 응교·규장각직제학·이조참의를 지냈다.

1853년(철종 4) 강화도 조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화유수에 임명되었다가 전라도관찰사·의정부좌참찬·예조판서를 지냈다.

1860년(철종11년) 형조판서, 병조판서

1861년(철종12년) 의정부 좌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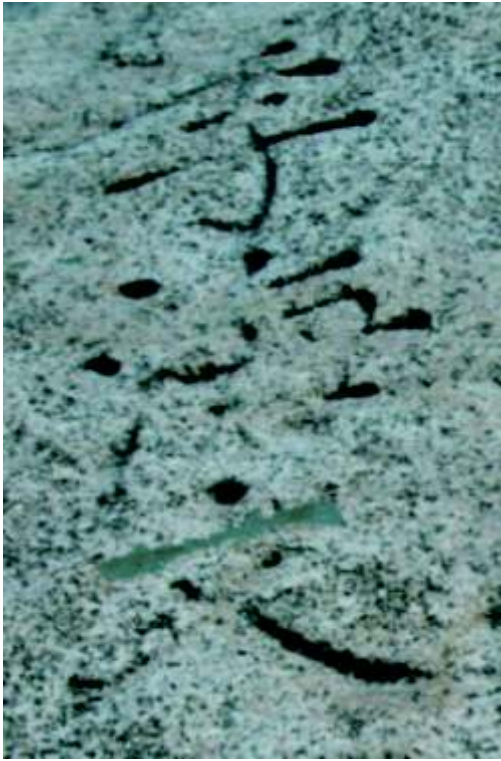
1862년(철종13년) 이조판서

1864년(고종1년)에는 홍문관 제학

1871년(고종8년) 신미양요 때에는 광주유수(廣州留守)가 되었다.

1878년(고종15년)에 다시 내직으로 공조판서, 제학·시강원 빈객을 지냈다. 임오군란 전에 수원유수로 있다가 난이 수습된 뒤에도 요충지라고 유임되었고 한성부판윤으로 전임되었다.

정기세 외에 서장순, 류로수, 이면인의 이름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 이해문 (李海文)

---

<조선왕조실록 영조 99권, 38년(1762)>

전 황주 목사 임준의 처벌과 강령 현감 이해문의 조용을 명하다  
임금이 황해 감사의 장계를 보고서 명하기를,

“전 황주 목사(黃州牧使) 임준(任琿)을 해부로 하여금 잡아다 처리하고,  
강령 현감(康翎縣監) 이해문(李海文)을 해조로 하여금 승서(陞敍)하여  
조용(調用)하게 하라.”

· 이지용(李址鎔)의 차자





## 순사 정원용 (巡使 鄭元容, 1783~1873)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선지(善之), 호는 경산(經山).

아버지는 돈녕부도정 동만(東晩)이며, 어머니는 예조판서 이승우(李崇祐)의 딸이다.

1802년(순조2년) 정시문과에 급제, 가주서(假注書)·검열·부응교·이조참의·대사간 등을 지냈다.

1819년(순조21년) 이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사간원 대사간

1827년(순조27년) 강원도 관찰사

1828년(순조28년) 이조참판, 예문관 제학, 좌부빈객

1831년(순조31년) 형조판서

1833년(순조33년) 평안도 관찰사

1838년(헌종4년) 이조판서

1848년 영의정이 되었다.

1863년(철종14년) 호위대장

1874년(고종11년) 문충 시호를 받음



## 송재성(宋在誠)

<조선왕조실록 고종 4권, 4년(1867)>

공충도 암행어사(公忠道暗行御史) 홍철주(洪澈周)를 소견(召見)하였는데, 서계(書啓)를 올렸다. 서천 전 군수(舒川前郡守) 유방주(兪邦柱), 충주 전 목사(忠州前牧使) 민우세(閔禹世), 서원 전 현감(西原前縣監) 김익정(金益鼎), 연산 전 현감(連山前縣監) 이섭규(李燮奎), 서산 전 군수(瑞山前郡守) 정재기(鄭在箕), 제천 전 현감(堤川前縣監) 유남규(柳南珪), 예산 전 현감(禮山前縣監) 윤치우(尹致愚), 회덕 전 현감(懷德前縣監) 송재성(宋在誠), 이인 찰방(利仁察訪) 이석관(李碩寬)



## 김흥기(金興基)

---

<조선왕조실록 고종 46권, 42년(1905)>

조경단을 수리할 때 감독한 관찰사 이하에게 시상하다 조경단(肇慶壇)을 수개(修改)할 때 감독(監董)한 관찰사(觀察使) 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였으며 종2품 이태승(李台承)·엄주익(嚴柱益)·홍병건(洪秉健)·이준영(李準榮), 정3품 어담(魚潭)·강두흠(姜斗欽)·이범구(李範九)·김용호(金龍浩)·조종서(趙鍾緒)·김익승(金益昇)·윤석정(尹錫禎), 4품 서구순(徐九淳), 5품 김흥기(金興基)·남세희(南世熙)·이건영(李健榮), 6품 이건승(李健承)·이완중(李完鍾)·정두화(鄭斗和)·박호병(朴鎬秉)·이두용(李斗用)·원응상(元應常)·정면진(鄭冕鎭)·조원규(趙元奎)·윤경중(尹敬重)에게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 이광문 (李光文, 1778~1838)

---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경박(景博), 호는 소화(小華),  
호조 참판 이채(李采)의 아들이며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순조 1년(1801) 사마시에 합격,

1809년에 천거로 승정원 주서가 된 뒤 예문관 검열·전라 감사 등  
내외직을 두루 거쳐 이조 판서에 이르렀다.

1812년(순조12년) 겸필선

1819년(순조19년) 이조참의, 사간원대사간으로

1825년(순조25년) 성균관대사성, 이조참판

1827년(순조27년) 전라도 관찰사

1829년(선조29년) 한성부 판윤

1830년(순조30년) 형조판서, 공조판서,

1832년에 이조판서 사헌부 대사헌, 수원부 유수

1836년(헌종2년) 형조판서.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홍원섭 (洪元燮)

조선의 학자. 자는 태화(太和), 호는 태호(太湖)

치중(致中)의 현손(玄孫).

영조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후 음보(蔭補)로 참봉(參奉)이 되고

1790년(정조14) 황주 목사(黃州牧使)를 거쳐

1799년 사복시정(司僕寺正)을 지냈다.

수원 판관(水原判官)으로 부임하여

1801년(순조 1) 찬집랑(纂輯郎)으로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를 편찬한 공으로 가자(加資)되었다.



## 김병익(金炳翊, 1837~1921)

---

구한말의 관료. 일제 강점기의 조선귀족으로, 자는 좌경(左卿)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 정치가 한창일 때 이조판서를 지낸 김대근(金大根)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0년 철종 재위 중에 과거 문과 병과에 합격하고도

1863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옛 집권 세력인 안동 김씨를 배척하였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흥선대원군이 몰락하고 명성황후의 여흥 민씨가 집권한 이후에야 뒤늦게 관직을 맡을 수 있었다.

1878년 이조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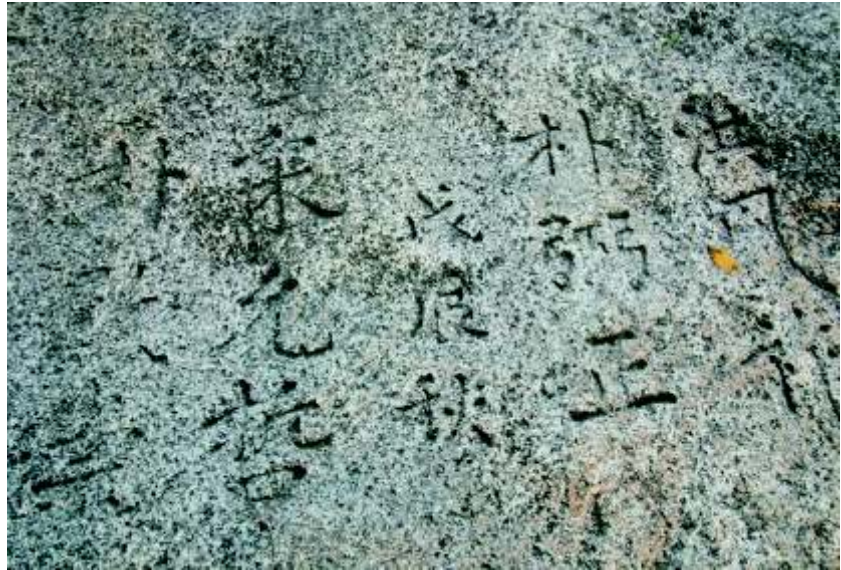
1879년 이조참판

1883년 성균관 대사성

1886년 사헌부 대사헌

1892년 한성부관윤, 공조판서

1893년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후 건양·광무 연간에는 시종원경, 궁내부 특진관, 비서원경 등을 역임했다.



## 박필정(朴弼正)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밀양. 자 계심(季心). 호 일휴(逸休).

1711년(숙종 37)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1719년(숙종45년)에 지평, 장령, 정언

1721년(경종1년) 장령

1724년(경종4년) 교리

1725년(영조1년) 장령

1727년(영조3년) 헌납

1737년(영조13년) 예조참의

1739년(영조15년) 가선에 가자되었다.

1741년(영조17년) 승지로 임명되었다.

## 제2절 계조암

신흥사 북서쪽 2.5km 지점에 위치한 자연석굴로 되어있는 암자로 후면에는 울산바위가 위치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 진덕여왕 6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창건 이후 동산(東山)·각지(覺知)·봉정(鳳頂)이 주지로 주석한 바 있고, 원효(元曉)와 의상(義湘) 등이 수도하여 계조암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창건 이후 역사는 소상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흥사사적기’에는 조선 고종27년(1890) 응화스님이 삼성각을 지었으며, 1908년 동암스님이 단청, 동고스님이 후불탱화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이 암자는 본래 석굴사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의 석굴은 입구에 목조전실을 짓고 전면에 「천연동굴계조암」이란 현판을 달았다. 전실을 들어서면 새롭게 축조한 3개의 원형 석조기둥과 이를 받치고 있는 아치형의 석재와 석축이 원형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석굴의 내부에 원형으로 법당을 조성하고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였는데, 뒷편은 후불탱화 폐쇄하였다. 본래는 석굴의 내부에서 밖으로도 출입이 자유로웠으나 현재는 석축을 다시 쌓아, 원형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옆의 바위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는데 그중 계조굴(繼祖窟)이라는 큰 글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계조굴 각자(刻字) 옆에는 윤사국서(尹師國書)라고 새겨진 글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각자가 조선 정조 때의 서예가이자 판서 벼슬을 지낸 윤사국(尹師國)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사국(尹師國)은 조선 정조(正祖) 14년(1790)에 강원도 관찰사를 지낸 인물이다.



## 관찰사 권시경(觀察使 權是經)



삼성각 왼쪽 바위 江陵府使 申厚 옆에 있다.

권시경(權是經) 1625~1708 (인조 3~숙종 34) 조선시대 문신.

자는 계상(季常), 호는 칠휴(七休).

음보(蔭補)로 함흥판관(咸興判官)이 되었고 1675년 (숙종 1)

증광문과 병과(丙科)에 급제, 장령(掌令)·집의(執義)를 거쳐

1682년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

1684년(숙종10년) 함경도 관찰사

1684년(숙종10년) 승지

1685년(숙종11년) 공흥도 관찰사

1687년(숙종13년) **강양도(江襄道)관찰사**

1694년(숙종20년) 함경도 관찰사

1696년(숙종22년) 도승지가 되었다.

1698년(숙종24년) 형조판서,

1700년(숙종26년) 참사

1706년(숙종 32년) 관윤으로 역임을 하였다.

1708년(숙종34년)에 사망. 시호는 정간(靖簡).

※ **강양도** : 강원도의 일시적 명칭으로 1683년 원주에서 강상  
죄가 발생하여 도명이 강양도로 개칭되었다가  
1688년 양양이 역적의 태향(胎鄉)이라 하여 다시  
강춘도로 개명되었으며, 1693년(숙종 19년) 강원  
도로 복구 됨.



## 강릉부사 신후재(江陵府使 申厚載)

---

삼성각 왼쪽 바위 중간에 있다.

본관(本貫) 평산(平山) 자(字) 덕부(德夫)

1660년(현종(顯宗) 1년)에 식년시(式年試) 을과1(乙科1)에 합격

1663년(현종4년) 지평으로 승진

1664년(숙종5년) 정언으로

1673년(현종14년) 헌납

1678년(숙종4년) 승지

1679년(숙종5년) 강원도관찰사

1690년(숙종16년) 도승지, 강화 유수

1692년(숙종18) 개성 유수

1693년(숙종9년) 판윤으로 특별 승진하였다.



## 신대년(申大年)

---

본관(本貫) 평산(平山).

영조(英祖) 50년(1774) 갑오년 증광시(增廣試) 을과7(乙科7) 합격.

이후 헌납, 교검, 강계부사, 관동암행어사 등 역임



## 관찰사 정상우 (觀察使 鄭尙愚)

---

삼성각 왼쪽 바위 중간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온양(溫陽). 자는 중급(仲及).

1790년(정조 14) 증광문과에 갑과로 급제

1799년 이조참의와 승지 지냄

1808년(순조8) 강원도관찰사를 지냈고

1810년 대사간·대사헌을 거쳤으며

1813년 대사헌

1815년(순조15년) 예조판서

1817(순조17년) 의정부좌참찬, 이조판서

1819년(순조19년) 함경도 관찰사

1821년(순조21년) 공조판서

1822년(순조 22년) 의정부 우참차로 역임.





## 관찰사 신헌조(觀察使 申獻朝)

계조굴 각자 아래에 있다.

본관 평산(平山).

정조(正祖) 13년 춘당대시(春塘臺試) 갑과1(甲科1) 합격.

1795년(정조19년) 사간원 대사간

1802년(순조2) 강원도 관찰사

1806년(순조6년)에 사간원 대사간으로 재 역임하였다.

그러나 1807년(순조7년)에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1819년(순조19년)에 의금부의 사단으로 삭출 죄인 신헌조를 방면하였다.

시조집 <봉래약부> 편찬.



## 이노춘(李魯春)

흔들바위가 없혀진 돌째 바다 돌에 새겨져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군정(君正), 호(號) 이력(履歷)

1779년(정조3년) 유생강제(儒生講製)에서 제거수(製居首)가 되었으며,

1780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1782년(정조6년) 이조좌랑

1783년(정조7년) 서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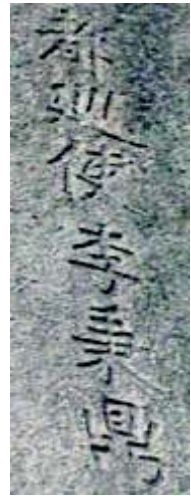
1799년(정조23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1800년(정조 24년) 필선에서 승지로 역임하였다.

1800년(순조 즉위) 강원도관찰사가 되고,

1802년 실록청당상으로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대사성이 되었다.

1803년 예조참판이 되었으나 1806년 탄핵을 받고 거제부에  
유배되었다. 편서로 《홍문관지 弘文館志》가 있다.



## 도순사 이병정(都巡使 李秉鼎, 1742~1804)

삼성각 왼쪽 바위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이충(頤仲).

1766년(영조 4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1768(영조44)에 정언이 되었고, 이어 지평·부수찬·검사서·수찬

1788년(정조12년) 사헌부 대사헌

1789년(정조13년) 이조참판, 홍문관부제학이 되었다.

1790년(정조14년) 사간원대사헌으로 삼았으나 부름에 응하지 않아  
울진 현령으로,

1792년(정조16년)에 이조참판, 도총관, 동지경연사, 예조판서

1793년 개성부 유수, 1794년 예조판서, 수어사

1795년(정조19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1796년(정조20년) 사헌부 대사헌, 다시 강원도 관찰사 유임.

1796년(정조21년) 이조판서, 한성부 판유, 의정부 우참찬

1801년(순조1년) 홍문관 제학, 한성부 판윤

1802년(순조2년) 공조판서, 판의금 부사로 역임

1804년(순조4년) 사망



## 계조굴 윤사국 서(繼祖窟 尹師國 書)

계조암(繼祖庵) 옆의 바위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음각되어 있는데 그중 ‘繼祖窟’이라는 큰 글자가 가장 대표적이다. ‘繼祖窟’각자(刻字) 옆에는 ‘尹師國書’라고 새겨진 글자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이 각자가 조선 정조 때의 서예가이자 판서 벼슬을 지낸 윤사국(尹師國)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윤사국(1728~180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칠원(漆原). 자는 빈경(賓卿), 호는 직암(直庵).

1763년(영조39년) 지평으로 승진,

1764년(영조 40년) 정언, 1767년(영조43년) 부수찬,

1772년(영조48년) 승지, 1775년(영조51년) 대사간으로 임명되었다.

1783년(정조7년)에는 사간원 대사간, 사헌부 대사헌, 부사 등,

1787년(정조11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1789년(정조13년) 원춘도(原春道)관찰사로 임명

1793년 공조, 형조 판서로 임명되었다.

1793년부터 1799년까지 형조판서, 한성부 판유, 의정부 좌참사 등을  
번갈아 역임하였다.

1809년(순조9년) 상호군(上護軍) 윤사국 사망.

**원춘도** : 1790년(정조14년)까지는 강원도를 원춘도라 하였고,  
1791년(정조15년)때부터 현재 지명인 강원도라 하였다.





## 관찰사 조봉진(觀察使 曹鳳振, 1777~1738)

계조굴 각자 왼쪽에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의경(儀卿), 호는 신암(愼菴).

1802년(순조2)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805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정언·부교리·필선·이조참의·대사성 등을 역임.

1816년(순조16년) 동래부사

1817년(순조17) 강원도 관찰사

1823년(순조23년) 한성부 판윤을 거쳐 형조판서

1824년(순조24년) 공조판서

1825년(순조25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나

1827년(순조27년) 명천부에 유배되었다.

1833년(순조33년) 형조판서로 복직

1834년(순조34년) 함경도관찰사

1837년(헌종3년) 사헌부대사헌, 공조판서

1838년(헌종4년) 이조판서, 형조판서와 함경도 관찰사로 그해 다시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 박종정(朴宗正)

---

삼성각 오른쪽 바위 끝에 새겨 있다.

박종정(朴宗正) [문과] 정조(正祖) 2년 (1778) 무술(戊戌) 춘당대시(春塘臺試) 갑과(甲科) 1[장원(壯元)]위 자 사문(士文) 생년 을해(乙亥) 1755년 합격연령 24세 본관 반남(潘南) 거주지 경(京) 1806년(순조6년) 이전에는 지평, 정언, 홍양현감, 부교리 등을 맡았다. 1806년(순조6년) 사헌부대사헌 1807년(순조 7년) 사간원 대사간 1812년(순조12년) 동지부사로 임명되었다.



## 서염순 (徐念淳, 1800~1859)

삼성각 오른쪽 바위에 새겨져 있다

조선의 문신. 자(字)는 경조(敬祖), 호(號)는 석범(石帆). 숙렬(肅烈) 춘보(春輔)의 아들,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된 공보(恭輔)에게 입후(入后), 1819년(순조19) 진사에 합격하고

1827년(순조27)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837년(헌종 3) 영흥 부사(永興府使)·승지(承旨)

1839년(헌종 5) 양주 목사(楊州牧使)를 지냈다.

1851년(철종2년) 이조참판, 한성부 판윤

1852년(철종3년) 광주부 유수

1853년(철종4년) 병조판서

1854년(철종5년) 사헌부 대사헌, 공조판서로

1856년(철종7년) 예조판서, 판의금 부사

1857년(철종8년) 평안도 관찰사

1858년(철종9년) 이조판서

1910년(순종3년) 문숙(文肅)이라는 시호를 받음.



## 서유영 (徐有英, 1801~1874)

---

흔들바위 밑 첫 번째 바닥 돌에 새겨져 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자(子)는 자직(子直), 호(號)는 운고(雲皐)이다.

1860년에 사릉참봉(思陵參奉)을 제수받고,

1865년 가을에 경상도 의령현감(宜寧縣監)에 부임.

4년만에 파직되어 유배. 이 시기에도 꾸준히 문학활동을 하여

1863년 12월에 소설 <육미당기 육미당기> 창작.



## 이현장(李顯章, 1674~1728)

---

흔들 바위 앞쪽에 새겨져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성보(誠甫).

1713년(숙종 39)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9년 남원현감을 지냄.

1722년(경종2년) 부수찬(副修撰)·부교리(副校理)·수찬(修撰)을  
역임했으며 이듬해에는 교리(校理)로,

1722년 이후로는 거듭 부수찬, 부교리, 교리, 수찬 등을 번갈아  
승진과 파직을 계속하였다.

1724년(경종4년) 의주 부윤

1728년(영조4년) 승지(承旨)로 임명되었다.





## 이윤식(李允植)

<조선왕조실록 순조 33권, 33년(1833)>

목사·군수·현감 등의 실정과 선정에 대해

암행 어사 김기만이 서계하다

또 충주 목사(忠州牧使) 김조연(金祖淵),

목천 현감(木川縣監) 성헌증(成憲曾),

보은 군수(報恩郡守) 이윤식(李允植),

문의 현령(文義縣令) 한여(韓頤)의 잘 다스린 실상을 말하니,

김조연에게는 새서 표리(璽書表裏)를 내려 주고,

성헌증에게는 숙마(熟馬)를 주었으며,

이윤식과 한여는 승급시켜 주었다



## 이상악(李商岳)

---

계조굴 옆 암벽 운사국 서(書) 밑에 이상악

본관 전주. 자 교백(喬伯)

영조(英祖) 42년 (1766) 병술(丙戌) 정시3(庭試) 병과(丙科) 1위

1767년(영조43년) 정언

1768년(영조44년) 사서, 부수찬, 문학

1769년(영조45년) 겸사서

1771년(영조47년) 응교

1776년(정조 즉위년) 성균관 대사성으로 역임하였다.



## 서정보 (徐鼎輔)

---

계조암 삼성각 왼쪽 바위에 있으며 繼祖窟 尹師國 書 바로 왼쪽에 있다.

1814년(순조 14년) 사간원 대사간

1817년(순조 17년) 가선에 가자를 받음.

1819년(순조19년)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다.

1822년(순조22년) 사간원 대사간

1831년(순조 31년) 다시 사간원 대사간이 되었다.

## 제3절 신흥사 부도군

‘부도’는 승려들의 사리탑(舍利塔)을 일컫는데 그 명칭은 부도(浮圖), 부두(浮頭), 불도(佛圖), 포도(蒲圖)라고도 한다. 원래 불타(佛陀) 또는 솔도파(率堵婆 Stupa)라는 음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처음에는 불상·불교사원·불탑을 의미했지만 뒤에는 고승들의 사리를 담은 석조 소탑을 지칭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후한시대부터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당나라로부터 선종이 들어온 9세기 이후 각 구산선문(九山禪門)에서 사자상승(師資相承)으로 법맥이 이어지면서 불상 숭배보다는 조사(祖師)들의 사리와 유골을 담은 묘탑이 중요한 예배대상이 되어 많은 부도가 세워졌다. 일반적으로 부도는 석탑과 마찬가지로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기단과 탑신, 옥개석이 8각형으로 된 8각원당형(八角圓堂形)은 신라말과 고려초에 성행했던 전형적인 부도 형식으로 우리나라 부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옥개석은 목조건축물의 기왓골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기단이나 탑신부에는 불·보살을 비롯하여 신장상(神將像)·비천(飛天)·사자(獅子) 등이 새겨져 있다. 문헌상으로는 <삼국유사> 권4 원광서학조(圓光西學條)와 권5 혜현구정조(惠現求靜條)에, 7세기 전반 신라 진평왕 때 원광법사의 부도와 백제 혜현의 부도를 각각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 늦어도 삼국시대말에는 부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유물로 가장 오래된 예는 통일신라시대의 전(傳)홍법사염거화상탑(844)이며 이외에 대안사적인선사조륜청정탑(861)·쌍봉사철감선사탑(868)·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880)·실상사수철화상능가보월탑(893) 등이 유명하

다. 8각원당형 부도는 고려시대에도 계승되었지만 범천사지광국사현묘탑(1085)과 같이 기단이나 탑신이 방형인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8각원당형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기단의 중대석에 귀부(龜趺)를 중심으로 4마리의 용을 입체적으로 조각한 고달사지부도라든가, 탑신만 둥근 형태인 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1017)처럼 특이한 예도 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예로 흥법국사진공대사탑(940)·고달사지원종대사혜진탑(975)·거둔사원광국사승묘탑(1025) 등을 들 수 있다.

고려말 조선초에는 형태가 아주 간략화되면서 탑신부만 있는 석종형(石鐘形) 부도가 크게 유행했다. 이는 인도의 복발탑(覆鉢塔)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형태가 종(鐘) 모양과 같다는 데서 석종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석종형 부도로 가장 오래된 것에는 신라 말기의 태화사지12지상부도를 비롯하여 금산사석종, 신륵사보제존자석종(1379), 화장사지공화상탑 등 고려시대의 예가 남아 있다. 조선시대에도 석종형 부도가 많이 건립되었으나 드물게 통일신라시대의 8각원당형 부도 형식을 따른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용탑(1394)과 회암사지부도(1407) 등도 전한다. 부도는 건축적인 요소 외에도 각 면에 불상이나 여러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고, 또 대부분 탑비에 의해서 그 건립연대를 알 수 있어 당시의 사회상이나 문화뿐만 아니라 목조 건축양식이나 석조미술의 흐름 등 미술사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신흥사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 지금은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된 오른쪽 길 옆에 부도밭이 있다. 이 부도밭에는 신흥사 사적비와 대원



대선사비(大圓大禪師碑)·용암대선사비(龍岩大禪師碑)·벽과당비(碧波堂碑)와 월암당탑(月岩堂塔) 등 20여 기의 부도가 있다. 또한 경내를 지나 설악산 흔들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입구에도 고암 상언(古庵尙彦) 스님과 정호 성준(晶湖聲準) 스님의 부도탑과 탑비가 세워져 있다. 흔들바위 올라가기 전 왼쪽 계곡에도 부도 2기가 있다. 조선시대의 부도인데 당호가 새겨져 있지 않아서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매표소에서 일주문으로 올라가는 차도 오른쪽에 19기의 부도와 6기의 비석이 모여져 있는 부도밭이 있다. 조선시대 후기 신흥사에 주석했던 여러 고승들의 탑과 탑비이므로 신흥사 역사에 도움을 주는 자료가 된다. 이 부도군(浮屠群)은 현재 강원도문화재 자료 제115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부도밭에는 '신흥사 사적비(事蹟碑)'와 '대원대선사비(大圓大禪師碑)', '용암대선사비(龍岩大禪師碑)', '벽과당비(碧波堂碑)'와 '월암당탑(月岩堂塔)' 등 20여 기(基)의 부도가 조성되어 있다.



## 내원암 현판

내원암은 신흥사 북서쪽 1.5km 지점에 위치한 암자이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율사가 향성사를 창건할 때 동시에 현재의 내원암 자리에 능인암을 세웠으나, 신라 효소왕 7년(698)에 향성사와 같이 불타 버렸다. 그 후 3년 후인 신라 효소왕 10년(701)에 의상조사가 능인암 터에 절을 중건하여 선정사라고 하였다.

그러던 것이 조선 인조 20년(1642) 선정사가 불타 버리자 2년 후인 조선 인조 22년(1644)에 현재의 신흥사 터에 절이 중건되어 절 이름이 신흥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선정사 자리에는 같은 해 용암대사가 내원암을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 내원암은 조선 철종 11년(1860)에 불타고 말았으며 해봉스님이 중건 하였으나 조선 고종 22년(1895)에 또 다시 불타고 말았다.

오늘날의 내원암은 1914년에 금강산 신계사 비구니 김수영에 의해 다시 재중건된 것으로 조선 고종 28년(1901)에 조성된 후불탱과 함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문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내원암'(內院庵)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있다.



## 신흥사사적비(神興寺事蹟碑)

---

소재지 : 신흥사입구 부도군

연대 : 조선 영조(英祖) 40년(1764)

규모 : 총높이 287cm, 비신높이 204cm, 두께31cm, 폭 79cm

신흥사의 유래를 적어놓은 비석으로 내용은 함경도감사였던 죽석(竹石) 조돈(趙墩, 1716~1790)이 짓고, 글씨는 배와(杯窩) 김상숙(金相肅, 1717~1792)이 썼다.

雪嶽山神興寺事蹟碑銘

有名朝鮮國江原道襄養府雪嶽山新興寺事蹟碑銘井序

嘉善大夫前任咸鏡道觀察使趙墩撰

通訓大夫前行楊根郡守金相肅書

楊子雲稱在門墻則靡之在夷○則進之韓文公嘗取其說余於是法焉可乎雪嶽古有禪定寺新羅哀莊王時洞山覺智鳳頂三祖師說法處也 崇禎甲申區宇蹟履履冠履倒置時寺亦厄於火劫運攸同釋靈瑞重朐淨藍更新廉觀額之以神興其將發願顯化身作大檀越於皇明天地普濟塗炭生靈於慈航重興神京如是寺之爲邪神州陸沈草木腥膻一部春秋○○可讀而左海壹隅獨自乾淨匪風下泉之思不絕於謳吟公門緇釋亦有能以此名寺而揭扁者其意豈止於呪呪祝冥祐蕪資佛力而已哉顧名思義亦必有激勵感發興期人心者然則鼓動天下尊周攘夷佛亦不爲無助也豈可靡之以崇信異枚不知有君臣大義不思所以進之之都乎師遠自誓妙香來北東○○○○○潔身蹈海終焉逃世入山耶豈不亦異乎大義天運循環無往不復涸灘今已三廻而夏康之義旅不舉河清之消息尚遲豈意金 一物反不及○○小刹東其弊而不同其興耶峨冠博帶誠有愧於斷髮衣緇者矣白頭之南本山最高四時之禪雪常在焉故名以雪也西麟東襄內外之分也西有五世庵卽梅月堂棲息之所永矢庵在曲百淵上三淵先生嘗嘉遯於此阿育塔歲世尊牙齒在西臺東有天吼山狀若束笏無風而鳴山下有石广卽繼祖窟窟前有盤石盤上有動石飛仙臺石食堂水石之勝淵翁曾有東方上乘之題品焉師之徒戒嘗擇均繼山文事托其徒圖不朽來壘朱至再三此亦火傳之矣耶余與李上舍衡喆渤海海上數旬亦有所聞見而感於心者故略記之如此云爾

銘曰 雪嶽有禪顯俱雪 不特其顯心亦雪 眼底東流浪激雪 羞天下羞擬刷雪 看三字額志皈雪 物事一危孰爲雪 撮概銘刻石又雪

皇明崇禎紀元後三甲申三月 日刻立



## 용암당대선사비 (龍巖堂大禪師碑)

소재지 : 신흥사입구 부도군

연대 : 조선 영조(英祖) 41년(1765)

규모 : 총높이 302cm, 비신높이 171cm, 두께31.5cm, 폭 71.5cm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 높이 1.7m의 비석이다.

비좌는 장방형의 자연석으로 상면과 측면에서 치석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비신은 45cm×109cm×10cm 크기의 2면 비이다. 전면에는 자경 7~11cm크기로 「戒月圓明 道□天下 龍□堂大禪師 碑 定水登清 德冠四海」라고 쓰여져 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형으로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조성되어 있다. 낙수면의 하면에는 음각으로 된 낙수홈이 마련되어 있다.

이 비는 좌의정을 지낸 쌍계(雙溪) 이복원(李福源, 1719~1792)이 비문을 짓고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글씨를 썼다.



有明朝鮮國龍巖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  
李福源撰

資憲大夫原任漢城府判尹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姜  
世晃書

夫抱幽憂疾久謝筆硯有浮屠弘愍者爲師乞銘守東郭經歲不去祈叩  
益堅余始而疑卒而歎曰彼雖異吾道而能竭其道之忠於身去之後如  
此殆有不蘄然而然者存焉是足以銘矣按其狀師法名體照號龍巖本  
鄭姓長城士族幼失兩親與其兄北遊兄歸而獨寓南漢隨釋稔長老入  
雪山祝髮受戒於白蓮堂智欽大師後遇日庵法師益肆力於內外典轉  
參南北諸宗而歸日庵以所居內院屬師錫以法號自此卓錫豎拂施教  
日廣蓋於清虛爲七世孫云晚年謝遣門徒一日弟子洪波往省之師疾  
病索筆書偈曰與我有親親何時更 有親親親返前昔在今又無因我今  
又得在前聖是吾親今朝大笑去楓嶽萬峰濱乃浴身更衣 越三日示寂  
卽己亥十二月二十一日壬戌也 壽六十七法臘五十一 門徒等建浮  
圖於內院之東寶藏舍利師喜施予有心計自童歲解屬辭有詩文若干  
篇傳於其徒 余於少時游雪嶽意有高禪逸士棲寄於巖洞松桂之間  
而未之見也今聞師住此山四十年竟以樂終其得於耳謨目營而融於  
心者必有神解妙詮之可以嚶惺人性靈喜師之遇眞境而恨余之無夙  
因也 銘曰 我不識師 銘奚以爲 見師之偈 如眞見師 東有雪山 桑  
海其隣 銘師於是 是亦夙因 崇禎紀元後三己酉五月 日立

## 유명 조선국 용암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龍巖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경연사감춘추관사이며 세자의 스승인 이복원이 짓고 자헌대부로 전에 한성부판윤 겸 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던 강세황은 쓴다.

노부가 우울병이 오래되어 글을 안 쓴지 오래되었는데 홍민이라는 중이 선사를 위하여 명을 지어주기를 청하여 동곽(東郭)을 지키며, 해가 지나도 가지 않고 기원하는 것이 더욱 견고하였다. 내가 처음에는 마칠 것을 의심했으나 탄식하면서 말했다. 저쪽이 비록 내 도(道)와는 다르나 능히 그 도(道)가 몸에 충만하기를 다할 수 있으니 선사가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명을 지을만하다. 그 행장을 살펴보면 선사의 법명(法名)은 체조(體照)이고 호(號)는 용암(龍巖)이다. 본래 정씨(鄭氏)성으로 장성(長城)의 사족(士族)이었다. 어려서 양친(兩親)을 잃고 그 형과 함께 북쪽으로 유람(遊覽)왔다가 형은 돌아갔으나 홀로 남은 석임장로에게 일년간 의탁하였다. 설악산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백련당 지함대사(白蓮堂 智欽大師)에게 계(戒)를 받았다. 후에 일암법사(日庵法師)를 만나 더욱 불경(佛經) 및 기타 전적(典籍)을 공부하였으며, 남북제종(南北諸宗)의 전적(典籍)들도 공부하였다. 일암(日庵)으로 돌아와 내원(內院)에 거할 때 스승이 법호(法號)를 주었다. 이로부터 석장(錫杖)을 세우고 닦음을 완성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날로 넓어졌다.

대개 청허(淸虛)가 칠세손(七世孫)이 된다고 이른다. 만년(晩年)에 문도들을 사절하여 보냈다. 하루는 제자 홍파왕(洪波往)이 선사를

보살렸는데 선사가 병이 위중할 때 붓을 찾아 게(偈)를 짓기를 나와 친함이 있는데 친함은 어느 때 바뀔까? 친했던 것은 예전에 것이 돌아온 것이니 지금(只今)은 또한 나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얻어진 것이니 성(聖) 이것이야말로 나의 친함이다. 오늘 아침 크게 웃으며 가리라.

만봉(萬峰)에 단풍이 들러 할 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지 삼일 만에 입적하였으니 곧 개해 십이월 이십일일 임술(壬戌)이었다. 세수가 육십 칠세이고 출가한지 오십 일년 이었다. 문도(門徒)들이 내원(內院)의 동쪽에 부도를 세우고 사리(舍利)를 보장하였다.

선사는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으며, 또한 심계가 어렸을 적부터 뛰어났다. 문사와 시문(詩文) 약간편이 그 문도(門徒)에게 전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에 설악산에 노닐면서 고선일사(高禪逸士)들이 석굴 송계(石窟 松桂)지간에 머물러 사는 것에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 지금 선사가 이산에 사십 년을 머무르다가 마침내 편안한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을 들었다. 선사는 귀에 들은 것을 눈으로 실천할 것을 도모했으며, 마음에 화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불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서이니 인성의 존엄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선사가 참된 경지를 만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오래된 인연이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한다.

그 명(銘)에 이르기를

나는 선사를 모르는데 명을 어떻게 지으리오.

선사의 게를 보니 선사를 뵈는 것과 같아

동쪽에는 설악산이 있고,

상전벽해는 그 이웃에 있네.

이에 선사의 명을 지으니

이 또한 오래된 인연이리라.

崇禎紀元後三 己酉년五月에 세우다



## 대원당대선사비(大圓堂大禪師碑)

소재지 : 신흥사입구 부도군

연대 : 조선 정조(正祖) 16년(1792)

규모 : 총높이 288cm, 비신높이 182cm, 두께31cm, 폭 71cm

선사의 법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는 대원당(大圓堂)이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키는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하였으나 사양하고 설악산에 들어와 일암대사(日庵大師)의 제자가 되었다. 선사는 불경 및 기타 서적에 깊은 지식이 있었고 면벽수련으로 도가 더욱 높아졌다. 신해(辛亥)년 7월에 극락암에서 입적하였는데 세수(世壽)가 78세였고, 출가한지 60년이였다.

이 비는 규장각 직제학인 유언호(兪彦鎬, 1730~1796)가 짓고, 공조 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인 조윤희(曹允亨, 1725~1799)이 썼다.

有明朝鮮國大圓堂大禪師碑銘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原任奎章閣直提學俞彥鎬撰并篆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曹允亨書雪嶽名于域中古清寒子暨三淵翁遺躅尚在而淵翁所嘗與爲淨社之游如曠道人雄大師其人皆靈淑所鍾超上津筏其道珠而其致一後之尚賢者奚方內外之間焉余嘗居白城之墅有比丘道圓者自雪嶽走千里爲師乞銘問其師乃賢道人高足大圓大師也嘻卽其淵源之所自可而知師矣師法名無外號大圓堂本文姓高麗江城君益漸之後父壽遠母金氏夢月而娠旣生肌膚淨潔不藉洗浴爲兒嬉戲皆作佛事見者異之甫成童當戊申國難奔赴南漢守堞有勞難己賞射獲多當第遂力辭而歸忽自念人之寂於物者以有靈明也其可緣形役性喪吾神珠乎旣而父母擇對將諷日送之乃中夜脫身走入雪嶽問道日庵大師大師卽賢道人也賢與語奇之傳其心印繇其上有雪巖月渚楓潭鞭羊以接乎清虛於師六世也師夙有慧識於內外典深獨得以開衆覺中年苦眼眚於是面壁心灰回光內照行益苦道益尊蔚然爲一代業林之宗今上辛亥七月乙酉寂于雪嶽之極樂庵壽七十八臘六十臨化謂衆曰我將行矣其勿以彌文累我旣焚化有光燭天移日不去門僧慧遠得靈珠一顆爲浮圖以藏之云余仍詰之曰圓甬道以無爲爲宗顯揚褒大何有於師哉圓曰以爲無也則三千大界便作空華以爲有也則眞妄皆境隨所在而致力亦人之道也圓古而氣清徧習竺典專心所事殆古所謂不見其山願見其木者歟遂爲之銘曰

赴難 賞清虛之風兮

因性早覺月渚之通兮

五祖傳印臨濟之宗兮

由戎八 水止鑑空兮

雪山嵯峨寶珠玲瓏兮

於千萬年皎皎靡終兮

崇禎紀元後三壬子十一月 日立



## 유명 조선국 대원당대선사비명 (有明 朝鮮國 大圓堂大禪師碑銘)

대광보국 승록대부(大匡輔國 崇祿大夫)로 전에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를 지냈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 直提學)인 유언호(兪彦鎬)가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로 공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工曹參判 兼 同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 副總冠)인 조유흥(曹允亨)이 쓴다.

설악산은 나라에서 유명하다. 옛날 청한자(淸寒子)와 삼연옹(三淵翁)이 남긴 자취가 아직도 존재한다.

그리고 연옹이 함께 했던 정사(淨社)의 교유(交遊)로서 색도인(曠道人)과 웅대사(雄大師) 같은 사람은 신령하고 맑은 기운이 모여 상무(上茂)를 초월한 분들이니 그 도(道)는 달랐으나 그 귀취점은 하나였다. 후세에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는 사람이면 무엇 때문에 방내(方內)니 방외(方外)니 하는 차별을 하겠는가? 내가 일찍이 백성(白城)의 별장에 거(居)할 때 비구인 도원(道圓)이라는 자가 설악으로부터 천리를 달려와 선사의 명(銘)을 짓기를 청하였다. 그 선사가 누구인가 물으니 곧 현도인(賢道人)의 제자 대원대사(大圓大師)였다. 아! 그 연원(淵源)이 그러하니 선사를 알만하다.

선사의 범명(法名)은 무외(無外)이고 호(號)는 대원당(大圓堂)이다. 본래(本來) 문씨(文氏) 성(姓)으로 고려(高麗) 강성군(江城君) 익점(益漸)의 후예(後裔)이다. 아버지는 수원(壽遠)이고 어머니는 김씨(金氏)이며, 태몽(胎夢)에 달을 보고 임신(妊娠)한 후 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정결하여 목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아이 때 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불사(佛事)와 관계된 것이어서 보는 이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소년 때인 무신년(戊申年)에 국난을 당하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여 성(城)을 지켰는데 공이 있어 벼슬을 주려고 했으나 사양하고 돌아와 홀연히 사람이 사물에 적(寂)할 수 있는 것은 영명(靈明)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음이 육체적 생활(肉體的 生活)의 노예(奴隸)가 되어 사역(使役) 당하는 일은 자신의 신주(神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설악산(雪嶽山)에 들어가 일암대사(日庵大師)를 물어 찾았는데 대사(大師)가 곧 현도인(賢道人)이었다. 현인이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 후 그에게 심인(心印)을 전해주었다.

그 위에는 설암(雪巖), 월저(月渚), 풍담(楓潭), 편양(鞭羊)이 있고 청허(淸虛)에 이르기까지 육세(六世)가 된다. 선사는 일찍이 불경(佛經) 및 기타 서적(書籍)에 깊은 지식이 있었으며, 깊이 있게 홀로 대중을 깨우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중년(中年)에는 안질(眼疾)로 고생하였으며, 이에 면벽(面壁)수련에 들어가 마음이 다하도록 수련한 결과 회광 내조(回光 內照)에 이르러 수행은 더욱 고통스러웠으나 도가 더욱 드높아져서 울연(蔚然)히 일대(一代)의 업(業)을 이루었다. 신해(辛亥)년 칠월(七月) 을유(乙酉)에 설악(雪嶽)의 극락암(極樂庵)에서 입적(入寂)하였다. 세수(世壽)가 78(七十八)이요, 출가(出家)한지 60년(六十年)이었다. 입적(入寂) 하기 전에 대중에게 이르기를 나는 장차 입적(入寂)할 것이다. 글을 지어 나를 엿매이지 말라, 이미 다비식을 치를 때 환희 비추는 빛이 하늘로 이어져 날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문승(門僧) 혜원(慧遠)이 영주일과(靈珠一顆)를 얻어 부도를 세우고 그것을 보장하고 이르기를 내가 거듭 밝히지만 선사의 도(道)는 무위(無爲)로써 기본을 삼는 것이니 선사에게 세상에 명예가 드리난다든가 칭찬 받는 것이 어찌 큰 것이 되겠는가?

선사가 말하기를 삼천 세계(三千世界) 라는 것은 편히 지어낸 공상으로 실체는 없는 것이고, 진실과 허망한 것 모든 경우는 있는 곳에 따를 뿐이니 힘을 다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도(道)이다. 선사의 모습은 고풍스럽고 기는 맑으며 두루 학습하고 경전을 독실히 공부하였다.

하는 일마다 마음을 다하셨고 예전에 그 산을 보지 못하며, 그 나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하여 명(銘)을 짓노라.

어려움에 이르고 상을 피한 것은 청허(淸虛)의 풍이여, 인성(因性)을 일찍 깨달은 것은 월저(月渚)와 통한다. 오조(五祖)에 심인(心印)을 전한 것은 성취함의 으뜸이여, 마음으로 심복 시킴은 명경지수 같은 거울이다.

설산(雪山)은 우뚝 솟고 보주(寶珠)의 영롱(玲瓏)함이여, 천만년 후에도 고결함이 잊혀지지 않으리라.

崇禎紀元後三 壬子년 十一月에 세우다.



## 벽파당대선사비(碧波堂大禪師碑)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 높이 2.4m의 비석이다. 장방형의 비좌는 102cm×110cm×33cm로 상면에 비해 하단이 넓게 치석된 것으로 보인다. 비신은 137cm×63cm×22cm의 크기로 2면 비인데, 전면의 상단에는 「碧波堂大禪師碑銘」이 자경6cm의 크기로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新興寺史蹟」에 소개되어 있다.

이수는 花形으로 안쪽에는 1조의 음각선으로 周緣을 따라가며 전체적인 형태를 잡았는데, 규모는 107cm×70cm×50cm의 크기이다. 전면에는 도깨비문이 조식되었는데, 큰 눈망울, 주먹코, 장타원형의 입 등이 해학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후면에는 5엽의 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 용□당대선사비(龍□堂大禪師碑)

비좌·비신·이수를 갖추고 있는 높이 1.7m의 비석이다. 비좌는 장방형의 자연석으로 상면과 측면에서 치석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비신은 45cm×109cm×10cm 크기의 2면 비이다. 전면에는 자경 7~11cm 크기로 「戒月圓明 道□天下 龍□堂大禪師 碑 定水登清 德冠四海」라고 쓰여져 있다. 옥개석은 팔작지붕형으로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조성되어 있다. 낙수면의 하면에는 음각으로 된 낙수홈이 마련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글자는 躡(배방)으로 생각되며 고증이 더 필요하다.





관내  
의  
금석문



尹宗晚

李翼

金鑾元

李昌

金載

李

제3장 관내의 금석문

제1절 학무정

제2절 유교 관련

제3절 근현대

# 제3장

## 관내의 금석문

### 제1절 학무정

학무정(鶴舞亭)은 속초시 상도문동 송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말 성리학자 오윤환(吳潤煥)이 1934년에 현 위치에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 모양이 6각(六角)이므로 옛날에는 육모정이라 불렀으나, 정자 4면에 이름을 적은 현판이 남아 있다. 남쪽 학무정, 북쪽 영모재(永慕齋), 북동쪽 인지당(仁智堂), 남서쪽 경의재(敬義)가 그것이다. 정자 안쪽으로 11개의 시판(詩板)과 1개의 학무정기(鶴舞亭記)가 있으며 정자 옥면에 분합문(分閤門)을 단 흔적이 남아 있다.

학무정을 건립한 오윤환(1872~1946)의 본관(本貫)은 해주(海州), 호는 매곡(梅谷)으로 속초 도문동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성리학을 깊이 궁리(窮理)하였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향리(鄕里)에서 제자 교육에만 힘썼으며 효성도 지극하였다. 3·1 독립만세운동에 제자들과 참여하였다가 일본경찰에 검거되어 곤혹을 치렀으며, 삭발령과 창씨개명을 철저히 반대하였다. 그 후 학무정을 건립하여 선비들과 글을 짓고 시를 읊으며 제자들과 강론하는 교육의 도장으로 삼았다.

정자 옆으로는 1971년에 세운 학무정 기념비와 1955년에 세운 충효 강릉 박공휘지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知碑)가 위치하고 있다.





## 학무정기념비 (鶴舞亭紀念碑)

---

학무정의 건립을 기념하는 비이며, 학무정을 건립한 오윤환의 후손 오수현이 1971년에 건립하였다. 비문은 성균관장 영수 권중해(權重海)가 지었으며, 그 비문은 『束草市誌』에 발췌되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이 기념비는 학무정 옆에 위치해 있다.



### 鶴舞亭紀念碑文

古人云祖先有善而子孫不知則不明知而不思闡揚則不孝其爲戒深切也微菴海州吳公諱辰光有邃學懿行而性好恬靜視軒冕等浮雲隱居襄陽今束草市道川其上有九谷第二谷最佳絕岩石成坵名曰鶴舞坵盖取形如鶴舞或非曾鶴來翔舞者耶公志介于石每盤桓嘯詠樂天敬人以終世居然鶴去坵空已百餘載四代嗣孫潤煥氏以斯坵卽吾祖杖屨之所懼夫道韻剩馥寢久湮泯會族親閨里閨構亭宇仍扁以鶴舞亭保守克勤至其孫秀鉉復謂亭或頽圯石不磨泐議建紀念碑攻石他山載車運來此坵岩實天性而加人力嵌凹堅碑於是乎堅其盤石將永奠千秋豈非其祖其孫旣明且孝不惑如石古訓者耶秀鉉甫來囑記碑文全以癡癡辭復繼書面不獲已強耗塞責至於亭坵周圍山川烟雲之勝景潤煥氏記文已盡之第欲一言凡後孫衛先不但在於建亭建碑須孝悌以齊宗敦睦以御族讀書講禮槌槌乎日常當行之道方可謂報祖先而裕後昆倖諸君子勿或以人廢言耶此亦是古人之訓也

檀紀四千三百四年辛亥五月 日

成均館長 永嘉 權重海 謹撰



## 제2절 유교 관련

---



忠孝朴公諱志諱之碑

## 박지의 효자비각과 충효 강릉 박공휘지의지비 (忠孝朴公諱志誼之碑)

---

강릉박씨 박지의의 후손들에 의해 1955년에 건립되었다. 처음에는 효자각이 있었던 위치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학무정 옆에 세워져 있다.

### 忠孝朴公諱志誼之碑

輿在李朝憲廟己酉昇遐公除壇望哭致祭終身如之且有孝行既甲午自朝家  
有命旌焉茲敢撫其行書諸貞珉以壽傳焉嗚呼欽哉

後學 濟州人 高碩柱 勤識行

曾孫 永灝 永宣 永佐

次高孫 華賓

宗長 永燦

乙未 十一月 十日

石工 于文房

## 박지의 효자비각과 충효 강릉 박공휘지의 지비(忠孝朴公諱志誼之碑)

효자비각은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리 숙개골에 위치하고 있다.

박지의는 강릉 박씨로 조선후기에 이 고장이 배출한 대표적인 효자이다. 그는 조선 정조 23년(1799)에 태어났다. 26세 되던 조선 순조 24년(1824)에 부친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주었고(단지수혈), 같은 해 7월 17일 부친상을 당하자 3년 동안 정성껏 시묘살이를 했다. 51세가 되던 조선 현종 15년(1849) 6월 6일에는 임금님이 승하하시자 마을 앞 쌍천 갯가의 조용하고 깨끗한 곳(현재 학무정이 있는 곳)을 골라 제단을 쌓고 부모상 때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망곡을 하였다. 그 후 박지의는 1860년 62세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뛰어난 충성심과 효성은 이 지방의 유림들에 의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강원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알려져 마침내 그가 타계한지 33년이 지난 조선 고종 30년(1893)에 12월에 정려(旌闈)의 명이 내려 효자비각을 망곡하였던 터 옆에 세웠다.

더불어 나라에서는 그에게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라는 관직을 하사했다. 그 후 홍수로 비각이 유실되자 1937년 다시 비각을 그의 무덤이 가까운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고, 1984년 봄에는 속초시장이 비각의 단청을 다시 하고 주변을 정화했다.

그 전에 효자비각이 있었던 속초시 도문동 상도문1리 쌍천가 학무정 옆에는 1955년에 후손들이 세운 충효강릉박공의지비(忠孝江陵朴公諱志誼之碑)가 있다.



## 유물재비(碑)

소재지 :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886-1답

연대 : 조선 영조(英祖) 24년(1748)

규모 : 총높이 194.5cm, 비신 138.5cm, 폭 60cm, 두께 20cm

영조 24년(1748) 양양유림에서 물재(勿齋) 유희일(兪晦一)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당시 양양도호부 강현면 물치리 덕말에 거주하였던 물재 유희일은 학덕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물재(勿齋) 유희일 선생(창원 출생)은 조선 후기 학자로 당쟁을 피해 이곳 대포동(물치리)에 오랫동안 머문 학자이다. 그의 학덕과 부친에 대한 효성을 마을 사람들이 흠모하여 그의 사후 이 고장의 유림들이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현 속초시 대포동 내물치리 마을 한가운데에 향현사라는 사당을 건립하여 해마다 제사를 지내왔다. 그 후 사당 건물이 퇴락하자 그 자리에 지금의 유허비를 세웠고, 유허비 부근 일대에 새 마을이 조성되게 되자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비문은 예조판서 조관빈(趙觀彬)이 짓고, 글씨는 강원도 관찰사 홍봉조(洪鳳祚)가 썼다.



유물재비 탁본모습 앞



유물재비 탁본모습 뒤

嗚呼此故處士勿齋俞公隱而結廬歿而立祠之遺墟也公諱晦一字顯叔昌原人參判號秋潭瑒之子自少勤學篤行爲士林所推重甲寅一番人躑躅賊鏹假儒名倡土禍其徒將濁亂賢關公與同志通文聲罪至欲付黃鑕名有識敬歎自此絕意公車卜居此村卽襄陽治之北村名勿緇尤菴宋先生生謫路住宿處也公卽地寓慕有高山景行之意扁其室曰勿齋取勿緇之義也不治產業惟堅坐攻書如大學心經近思錄乃其循環誦讀者而且於退溪語錄等書多有探賢之工一鄉靡不悅服公以親年漸高撤還永平就養竭基誠力從遊於玄石朴文純門文純許與甚重尼尹背師公有書辨論文純嘉其見識之明庚申尤菴自謫還公以筭記往復尤菴亦稱誦不已己巳以經行薦授冰庫別檢施移金吾郎不就母夫人疾篤斲指進血居喪過毀幾危庚午丁參判公憂嚴冬晝宵露處雉墓墓鳴上壘呼擗病庵庵猶不廢竟以孝殉公可謂有勤苦之學卓節之行而惜乎天不假年闕於中身未得究竟其志業也芝村李公喜朝銘其碣稱揚之今 上己酉回道臣狀 聞旌閭本邑儒林建鄉賢祠於勿緇舊齋之地辛酉回朝禁撤毀噫公誠鄉先生歿而可祭者也祠有無顧何輕重鄉人之薰其德而慕其風者久猶不衰將立碑以表託余爲文余嘗於公之李判書公館甥之日飽聞公實蹟遂略叙其事昔程夫子頑樂亭銘曰水不忍廢地不忍荒嗚呼斯可以銘此碑而示不忘矣

崇祿大夫行禮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同知成均館事 世子左賓客趙觀彬撰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洪鳳祚書

皇明紀元後再戊辰十二月 日立

### 물재(勿齋) 유(兪)선생 유허비(遺墟碑)

오호(嗚呼)라! 이곳은 고(故) 처사(處士) 물재(勿齋) 유(兪)공이 은거(隱居)하여 집을 짓고 살았고, 죽어서는(그를 追慕하는) 사당(祠堂)이 세워졌던 곳이다. 공의 이름은 회일(晦一)이고, 자(字)는 현숙(顯叔)이며, 본관(本貫)은 창원(昌原)이고, 참판(參判) 추담(秋潭) 창(場)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돈독(敦篤)하여 사림(士林)의 존중을 받았다. 갑인(甲寅, 1674 顯宗15)년에 일번인(一番人) 척축적(躑躅賊) 휴(鑄)가 유학자(儒學者)의 이름을 거짓으로 빌려 사화(史禍)를 일으켰고, 그 무리들은 현명함을 흐리고 어지럽혔다. 고은 동지들과 더불어 통문(通文)을 돌려 윤휴(尹鑄)의 죄를 성토하였는데, 휴(鑄)의 이름을 부황(付黃)하자는 데까지 이르렀고, (通文의 文章이) 유식(有識)하고 경탄(敬歎)스러웠다.

이로부터 뜻을 꺾고 공은 수레를 타고 이 마을에 정착하였는데, (이 마을은) 양양(襄陽)의 중심지에서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이름은 물치(勿縑)이며, 우암(尤菴) 송(宋)선생이 귀양가던 길에 머물러 잤던 곳이다. 공은 지방에 우거(寓居)하였으나, (尤菴선생의) 산처럼 높고 훌륭한 행실의 뜻을 사모(思慕)하였고, 그 집에 현판(懸板)붙이기를 물재(勿齋)라고 하였는데, “물치(勿縑)”라는 마을의 뜻을 취한 것이다. 산업(產業)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굳게 앉아 <대학(大學)>,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같은 <퇴계어록(退溪語錄)> 등 책에서는 현명함을 탐구한 공부가 많이 있어, 한 고장을 풍미(風靡)하였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공은 부모님의 연세가 점차 높아가자, (이곳에서) 철수하여 영평(永平)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곁에서 봉양(奉養)하였는데, 그 정성과 힘을 다하였다. 현석(玄石) 박문순(朴文純)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문순(文純)은 (공을) 매우 소중하고 가깝게 여김을 (마음속으로) 허락하였다. 윤(尹)이 스승을 배반하였을 때 尹鑄을 비판하는 〈서변론(西辯論)〉을 지었는데, 문순(文純)은 그 견식(見識)이 명석함을 칭찬하였다. 경신(庚申, 1680, 肅宗6)년에 우암(尤菴)은 귀양지로부터 돌아왔고, 공은 우암(尤菴)선생과 차기를 주고 받았는데, 우암(尤菴) 역시 (공을) 칭찬할 뿐이었다.

기사(己巳, 1689, 肅宗15) 기사년에 경학(經學)에 밝고 행실이 착함으로 인하여 빙고(氷庫) 별검에 천거(薦擧)되었고, 다시 금오랑(金吾郎)으로 옮겨졌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이 위독(危篤)하자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넣어 드렸고, 상중(喪中)에는 (몸의) 훼손(毀損)이 지나쳐 위태로웠다. 경오(庚午, 1690, 肅宗15)년에 정(丁)참판(參判)공은 (공이) 추운 겨울에 밤낮으로 한데서 거처하며 무덤을 지키고 있음을 걱정하였다. (공은 새벽에) 닭이 울면 무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다가 병이 들어 숨이 끊어 질 지경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중단하지 않다가 마침내 효(孝)로써 죽었다.



공은 과연 부지런히 학문에 애썼고, 행실이 남보다 뛰어났으나, 애석하게 일찍 죽어 나이는 중간에 막히고 몸은 궁극적으로 그 뜻한 업적을 얻지 못하였다. 지촌(芝村) 이(李)공 희조(喜朝)는 그 비석을 새겨 칭찬하였다. 현재 임금님이 기유(己酉, 1729, 英祖)년이 돌아오자 관찰사(觀察使)의 장계(狀啓)를 듣고 정려(旌闈)를 내렸고, 본 고을의 유림(儒林)들은 향현사(鄉賢使)를 물치(勿縑) 옛집의 자리에 세웠다. 신유(辛酉, 1729, 英祖5)년이 돌아오자 조정(朝廷)에서 (祠堂 건립을) 금지시켰고 (기존 祠堂은) 철폐해버렸다. 슬프도다! 공은 참으로 (이) 고을의 선생님이었고, 죽어서는 제사를 받을만한 분이였다. 사당(祠堂)이 있고 없음이, 고장 사람들이 그 덕에 교화(教化)를 받아 감화되는데 어찌 중요하지 않겠으나, 이 유풍(遺風)을 사모(思慕)하는 자가 오래도록 오히려 쇠퇴하지 않았다.

장차 비석을 세워(祠堂이 있었던 자리를) 표시하고자 나에게 비문을 부탁하였다. 나는 일찌기 공의 아우 판서(判書)공의 사위에게서 공의 실제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들었으므로 드디어 그것을 간략히 서술한다.

옛날에 정(程) 부자(夫子)가 완락정(頑樂亭)에 새기기를 “물은 차마  
썩지 않고, 땅은 차마 황폐해지지 않는다. (수불인폐 지불인황(水不忍  
廢 地不忍荒))”라고 하였다.

오호(嗚呼)라!

이것(程夫子의 말처럼 廢荒되지 않고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이 비석  
을 새겨 나타냄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승록대부  
(崇錄大夫) 행(行) 예조판서(禮曹判書)로서 의금부(義禁府) 판사  
(判事), 경연관(經筵官), 춘추관(春秋館)지사(知事), 홍문관(弘文館)  
제학(提學), 성균관(成均館) 동지관사(同知館事), 세자(世子) 좌빈객  
(左賓客)을 겸임한 조관빈(趙觀彬)이가 글을 지었고, 통정대부(通政  
大夫) 수(守)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로서 병마(兵馬)수군절  
도사(水軍節度使)와 순찰사(巡察使)를 겸임한 홍봉조(哄鳳祚)가  
글씨를 썼다.

명(明)나라 황제가 사용한 연대가 지나서(즉, 명나라가 망한 후)  
두번째 돌아온 무진(戊辰, 1748, 英祖24)년 12월에 (비석을) 세웠다.

## 제3절 근현대

---



### 관음각자

---

속초시 영랑호 동남쪽 속초의료원 뒷편 산봉우리에 관음암(觀音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바위에 ‘觀音’이라는 큰 글자가 종서(縱書)로 새겨져 있다.

글자의 크기는 지름이 약 80cm 정도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1줄에 4자씩 2줄, 종서로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으나 지금은 잘 알아 볼 수 없다. 그 왼편에도 역시 작은 글자가 종서로 ‘西歷 日九五二年 六月 日 / 李亨根 題/崔泓熙 書’ 라고 3줄 새겨져 있어 수복 직후 이 고장에 군정이 실시되고 있을 때 제 1군단장 이형근(李亨根) 장군과 명필 최홍희(崔泓熙) 장군에 의해서 각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랑호에 인접한 이곳은 옛부터 관음보살(觀音普薩)이 출현하는 성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 삼연 김창흡 추념비

삼연김창흡선생추념비

삼연 김창흡 1653~1722

그의 가문이 권문세가이었기에 당쟁의 상처도 컸다. 장희빈과 얽힌 기사환국에 부는 송시열과 함께 사사되고 중백부 또한 적소에서 죽는 등으로 처참한 가난을 당하였다. 당대의 뛰어난 학자요 시인이었던 삼연선생은 끔찍한 환해풍파가 싫어 내설악에 들어와 영실암을 어리다 물소리 술바람으로 흥락을 씻으면서도 문득 외설악의 웅자와 동해의 창파가 그리우면 속초에 자주와서 향사들과 어울려 시해주를 즐겼다. 삼연이 간지 사만천여년 산천은 변하였으나 그 정이 그리워 그의 비폭충담과 소야팔경을 세겨두고 그를 추념코자 한다.

## 박상희 읍장 송덕비(朴祥喜 邑長 頌德碑)

초대 속초읍장을 지낸 박상희의 송덕비이다. 1958년 9월에 ‘송덕비 건립위원회’의 이름으로 건립되었으며, 처음에는 시청 앞 광장에 세워졌으나 동명동 방호위로 옮겼다가 수복탑 옆으로 옮겨졌고, 현재 속초시 내물치리 비석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1992년 8월에 건립된 신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박상희 읍장은 1890년 현 속초시 장사동 장천리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한학을 공부하였다. 청년기에는 도문동 중도문리로 이사하여 이석범이 세운 쌍천서숙에서 신학문을 공부하였고 3·1운동에도 참가하였다.

그 후 강원도 평의원과 도천면장을 역임하였다. 면장 재직 시 속초항 개발을 추진하여 오늘날의 속초를 있게 한 장본인이다. 즉 천연의 조건을 갖춘 청초호를 항구로 개발함으로써 청초호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져 1937년 7월 1일에는 도천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졌고 면의 이름도 속초면으로 바뀌었다.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부령 제104호로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공으로 속초읍의 초대 읍장으로 추대되어 속초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48년 향년 59세로 세상을 마쳤다.





不草長推限林台洋喜頌渡碑

## 수복기념탑

---



수복기념탑은 실향민 도시 속초를 상징하는 탑이다. 이 탑은 전쟁 기념비라기보다는 통일을 염원하는 탑이라고 할 수 있다.

동쪽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이 끝나고 속초 지역은 수복되었으나 남쪽으로 피난하였다가 북쪽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많은 실향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이 탑을 만들었다.

당시 읍장이었던 김근식, 피난민 연락소장 박상선, 후방 반공 계몽인 박성주 등이 수복을 기념하고 피난민의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제1군단 민사처 보좌관 전형운 소령을 통해 건의를 하고 제1군단장이형근 장군의 승낙을 얻어(한국전쟁으로 수복은 되었으나 아직 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다.) 피난민의 회사금, 속초읍 부담 육백만원, 군부대의 차량 지원으로 1954년 5월 10일 건립하였다.

탑의 재원은 좌대 폭4m, 좌대 높이 7m, 모자상동상 높이 2.55m 등 총 9.55m의 화강암 재질로 되어 있으며 전쟁 유적비 탑의 상례인 군경조각동상이 아닌 민간인 모자조각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 탑의 특징이다.

이 탑의 맨 위에는 보따리를 끼고 있는 어머니와 북녘하늘을 가리키는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고향땅을 바라보는 애절한 모자조각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더 이상 고향땅으로 올라 갈 수 없는 실향민의 한과 통일의 염원을 대변한다.

이 모자 조각상은 당시 1군단소속 군인인 박칠성이 제작했으며, 애절한 사연을 담은 모자상부(母子像賦)는 당시 1군단 소속인 장호강 시인(한국참전시인협회장)이 지었다.

그러나 1983년 4월 27일 새벽, 동해안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모자상이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실항민들의 슬픔은 말할 수 없이 컸고 어부들도 귀항길이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수복기념탑의 파손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졌다.

이에 범시민적으로 수복기념탑복원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록)가 구성돼 시민성금 모금에 들어갔으며(시민성금 4천여만원과 시비 1천여만원) 결국 눈물어린 시민의 정성으로 인해 그해 11월 17일 수복기념탑은 다시 제막식을 갖게 됐다. 통일을 염원하는 속초시민 모두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다.

철책 너머 고향을 두고온 실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며, 통일의 그날에 대한 희망을 품은 「수복기념탑」도 이제 인간의 나이로 치면 어느덧 오십살이 넘어 육십줄을 바라본다.

그동안 설악문화제, 설악눈꽃제 등의 축제에서도 빠짐없이 통일 염원의 행사가 이곳에서 치뤄졌으며, 98년 5월 3일 영북지역 최초로 범시민적인 통일시민대회가 이곳 광장에서 열리기도 했다. 요즘 부쩍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수복기념탑은 8만 속초시민의 통일 염원을 하나로 묶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 碑 文

점점 높이 솟은 산봉우리 앞을 가리고  
구비구비 험한 길 아득히 멀어도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오손도손 망향의 이야기 나누며  
북녘 고향 땅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치고  
어느 낯익은 길손이 그 앞길 가로막는다 한들  
두 생명 다하도록 낮도 밤도 없이 가야만 하느니

도대체 그 누가 날린 저주의 화살일까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어느날 땅과 바다와 하늘이 둘로 갈리고  
동족상잔의 처절한 피바다의 싸움으로  
그 아름다운 강산 두고 온 옛집이  
젓더미로 변했다손 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피땀 흘려 일군 밭과 논  
그 정든 삶터를 찾아 마냥 가야만 하느니

뼈에 저리도록 허구한 고된 날이  
본시 살결 고운 북녘 아낙네 예쁜 얼굴에 주름끼 고이기로서니  
삼단 검은 머리에 흰 카락 불어나기로서니  
항시 머리 위에는 넓고 푸른 하늘이 열려있기에  
모진 풍파 옥된 세월에도 손과 손 굳게 붙잡고  
통일의 새날을 겨누어 줄곧 앞으로 가야만 하느니

북으로 오직 북으로  
고향 길 더듬는 네 다리는 비록 가냘프지만  
성난 해일 거센 폭풍에  
깊이 쌓이는 모래밭 헤쳐가며  
걸음걸음 내딛이는 참된 보람에  
줄어든 보따리 소중히 옆에 끼고  
오늘도 동해 갈매기 노래를 엿듣노라면  
불현 듯 아롱진 향수가 담뱃 어리는 그 길을  
쉬지 않고 가야만 하느니

시·장호강張虎崗



## 이름모를 자유용사(自由勇士)의 비

속초시 설악동 소공원에서 비전대 방향으로 약 2.4km 지점인 정고평(丁庫坪)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무명용사(無名勇士)의 비(碑)’로 불리워진다.

한국전쟁 때 설악산 산악전에서 중공군을 맞아 용감히 싸운 수도사단, 제11사단, 제5사단 순국장병과 군번 없이 참전했다가 산화한 학도결사대, 호림부대(虎林部隊)의 젊은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공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1965. 10. 30 한국일보사에서 제1군사령부와 강원도의 후원을 받아 <반공 애국 유적 부활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하였다.

당시 한국일보사 강원지사장 이구형(李球滢)이 비 건립을 발의하였고 제1군사령부 출입기자단장 지일권(池一權) 기자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시공은 국제토건회사(國際土建會社, 사장 朴贊奎)가 맡아서 하였다. 공사비는 강원도 내 각 기관과 독지가에게서 모금한 성금 2백만원으로 충당하였으며 쌍용시멘트회사에서는 시멘트 300포를 회사하였고 제1군사령부에서는 장비를 지원하였다. 공사 감독은 제1군사령부와 한국일보사 속초주재 마일연(馬一淵) 기자가 담당하였다.

‘이름모를 自由勇士의 碑’라는 휘호는 당시 육군참모총장 김용배(金容培)장군이 썼고, 비문은 시인이자 당시 제38사단장 장호강(張虎崗) 장군이 지었다. 기단높이 1.3m, 비석 높이 13m이다.



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碑文

지금은 자유의 땅  
 여기 님들이 고이 쉬는 설악에 영광의 탑은 높이 섰나니  
 아아 붉은 원수들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던 날  
 조국의 이름으로 최후까지 싸우다가 꽃잎처럼 흩어진  
 수많은 영들 호국의 신이여 님들의 이름도 계급도 군번도  
 누구 하나 아는 이 없어도 그 불멸의 충혼은  
 겨레의 가슴깊이 새겨져 길이 빛나리라  
 천추에 부를 님들의 만세여  
 언제나 푸른 동해물처럼 영영 무궁할 지어다.  
 一九六五年 十月三十日

## 설악산 지구 전적비(雪嶽山 地區 戰跡碑)

---



설악산 소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6·25동란 때 설악산지구 전투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전적비를 세우게 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976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이 교통부 연두순시 때 6·25 전적지(戰跡地) 개발을 촉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부에서는 1976년 2월 10일 전적지 개발 계획을 작성하였고, 1976년 7월 21일에는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국장급 및 관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설악산 지구 전적지 개발 사업은 1978년에 추진되었다. 1978년 1~6월까지 개발 대상지 답사, 측량, 전사(戰史)자료 수집, 사업 계획 승인 등을 거쳐 본 사업을 위한 설계를 7월 8일 완료하였다.

전적비 건립은 조각가 최기원(崔起源)이 9월 8일에 착공하여 11월 10일에 완공하였으며, 동년(1978년) 12월 11일에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전적비 규모는 비 기단 높이 70m, 비 높이 3m, 동상 기단 높이 75cm, 동상 높이 335m이다.

동상(銅像)은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자유·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진으로 돌진하는 국군의 용감한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전적비위에 세워져 있다.

전적비에는 <설악산 지구 전사문>과 <비문>및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 <설악산 지구 전사문>

여기 관동의 영산, 풍광 그윽한 곳에서 혈전이 있었던 것은 1951년 5월이다. 그해 2월에 삼척 부근에서 태백의 준령을 따라 북진한 국군 수도사단(맹호부대)이 4월에 관모봉 한계령선에 이르러 백담사와 대승폭포 부근에 도사린 북괴 제6, 제12사단과 대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맹호들이 청봉을 단숨에 뛰어넘고 노호를 터뜨리며 적구를 향해 공격해 갔으니, 그날이 5월 7일. 적의 저항도 완강하였지만 더우기 높은 봉, 깊은 골이 첩첩하여 식량과 탄약이 미처 뒤따르지 못하매 악전고투가 계속되었다. 이에 공군 수송기의 공중 보급을 받아 가며 난관을 극복하고, 공격 개시 5일만인 12일에 목표를 점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인제에서 하진부리로 침습한 중공군이 대관령을 위협하므로, 수도 사단은 그곳으로 달려가 그 적을 막아낸 다음, 반격을 재개하여 5월말에 일사천리로 이곳을 다시 지나 6월 초에 향로봉을 점령하고, 이어 건봉산을 장악함으로써 오늘의 휴전선인 남강 기슭에 진출하게 되었다. 그 때, 이 산천에 선혈을 뿌린 맹호의 이름은 일일이 밝혀 적지 못하거니와, 나라와 겨레를 위해 한몸 바친 젊은이의 넋이 여기 서려 있으니, 이제 청봉 높은 봉우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먼저 이 돌 앞에 고개 숙일 일이다.



碑 文

여기, 청봉 높은 봉우리  
돌 하나 옮겨 세우니,  
이는 천만 년을 이어 갈  
역사의 표말이다.

바람, 꽃  
아름다운 저 능선을  
적구가 짓밟을 때  
맹호의 노호로  
이 봉우리 지켰으니,  
설악이 여기에 없었더라면  
어찌 향로와 건봉이 저기에 있으리오.  
오월 초목  
단심으로 물들인 충혼,  
이 돌과 더불어  
길이 남으리라.

<건립 개요>

주관: 교통부

집행: 국제관광공사

후원: 국방부

제작: 최기원

준공: 1978년 11월10일



## 충혼탑 (忠魂塔)

---

속초시 도문동 중도문2리와 하도문리 경계인 신문덕에 위치하고 있다. 속초시 출신 전몰군경을 추모하기 위하여 세운 탑이다. 충혼탑은 본래 1964년 5월 동명동 등대 서편 산등성이에 건립하였던 것을 1969년 5월에 9만원의 시비(市費)를 들여 영랑호 남동쪽 현재 체육공원 자리로 옮겨 동년(1969) 현충일 날 제막식을 가졌으나, 다시 1987년 12월 15일 이곳에다 새로 건립하였다. 탑의 앞면 좌우에는 국군의 활약상을 조각한 청동상(靑銅像)이 부착되어 있고 뒷면에는 비문과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碑 文

돌에 새긴다  
한줌 구름을 고향 하늘에 띄워두고  
여기 깊이 잠들었는가  
길손이 묻거든 대답하라  
우리는 조국의 명령에 따라  
자유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꽃봉오린 채 이곳에 안식한다고  
영원한 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대들이 누리고 있음이여  
식지 않는 땅 열렬한 지평 위에  
찬란한 역사와 함께 살아 있노라  
젊은 목숨들이 받친 보석 바꾸니  
겨레의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네  
이 빛나는 자유 조국의 하늘 아래  
호국의 영들이여 길이 광명하라

### 황금찬

西紀 一九八七年 十二月 十五日

束草市長 尹泰景

### <구 충혼탑 비문>

아아 任務(임무)와 目標(목표) 앞에 救國(구국)의 至誠(지성)은 신을  
올리고 그 忠魂 天地(충혼 천지)와 함께 길이 빛났어라.

### <구 충혼탑 규모>

기단(基壇) 높이 165cm, 둘레 890cm, 탑신(塔身)높이 355cm, 둘레 360cm



## 해경충혼탑 (海警忠魂塔)

---

속초시 장사동 사진리(沙津里)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에서 해상 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꽃다운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해양경찰 대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에서 건립하였다. 기단부는 해경 함정 형태로 조각되었고, 그 위에 높은 탑이 세워졌다. 충혼탑 뒤 벽에는 비문과 순직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碑文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과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이  
여기 太白山 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오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가  
승고한 희생으로 永遠(영원)하시니  
세월이 흘러가도 海警人(해경인)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도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民族靑史(민족청사)에 충훈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경찰대 충훈탑을 세워  
이들 忠靈(충령) 한자리에 모시여  
호국 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 역사에 龜鑑(귀감)을 삼고자 하노라.  
서기 一九八六年 十二月 三十日

해양경찰대장  
치안정감 권복경





## 통천군 순국동지 충혼비(通川郡 殉國同志 忠魂碑)

영랑호 동남쪽 가에 있다. 통천군 출신 인사 중, 공산 치하에서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을 들고 북한 공산도당과 생명을 걸고 싸우다 피 흘린 반공 전사자 및 6·25 전몰용사 140명의 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영북지구 통천군민회(嶺北地區 通川郡民會) 신세묵(辛世默) 회장 외 5명이 발기하여 박용학(朴龍學), 정주영(鄭周永), 강서룡 등 전국의 통천군민 150명이 낸 회사금 120만원으로 1969년 10월 15일 건립하였다. 그 후 1990년 5월 30일 보수하였다.

충혼비 규모는 기단 높이 110cm, 둘레 17m, 비신(碑身) 높이 625cm, 둘레 5m이다.

충혼비 앞면에 <비문과>과 <순국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碑文

동방의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조국,  
자유, 평화, 정의의 깃발 아래 일신을 초개같이 던져  
북한 공산도당과 싸우다 아깝게 순국한 동지들의 불멸의 충혼을  
이 비에 새겨 고향 바다 흐르는 여기에 모시고  
반공과 통일을 다짐하오니 충혼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통천군민일동



## 유정충 선장 동상(劉禎忠 船長銅像)

1990년 3월 1일 제주도 남방 370마일 동지나해(東支那海)에서 선원 21명을 구하고 하나호와 같이 운명한 유정충(劉禎忠) 선장의 동상으로 1991년 1월 9일 제막되었다. ‘하나號(호) 船長 劉禎忠 像(선장 유정충 상)’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座臺) 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긴급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구리로 조각되어 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과 <추진위원명단>이 새겨져 있다.





## 제1군단 전적비(第一軍團 戰跡碑)

속초시 조양동 속초 해수욕장 입구, 당시 사령부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제1군단은 625동란 때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香爐峰)등지에서 적과 싸워 이 지역을 사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참전했던 용사들의 무훈을 기리고 산화한 장병들의 넋을 달래기 위하여 제8675부대에서 속초시의 지원을 받아 전적비를 건립하여 현충일에 맞추어 그 하루 전날인 1991년 6월 5일 제막식을 가졌다. 전적비의 높이는 7m이고 그 위에는 두 눈을 부릅뜬 채 북쪽을 향해 돌진하는 2.5m 높이의 청동제 용사상이 세워져 있다. 비의 양쪽 옆면에는 <비문>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건립 개요>가 새겨져 있다.

### 碑文

625전쟁 중 한만 국경까지 진격했던 제1군단은 1950년 6월 시흥에서 창설, 1951. 6. 6~1952. 12. 22 속초에 주둔하면서 설악산, 향로봉, 884고지, 월비산 전투에서 양양, 속초, 간성 을 필승의 투혼으로 사수하였다. 육군 전 장병과 지역 주민들은 이 전투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값진 희생과 무용을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이 전적비를 세운다.

1991. 5.30

육군참모총장 대장 이진삼





<625전쟁 당시 제1군단장>

초대 소장 김홍일 '50.7. 5 ~ '50. 9. 1

2대 소장 김백일 '50. 9. 1 ~ '51. 3. 29

3대 소장 백선엽 '51. 4. 7 ~ '12. 2

4대 중장 이형근 '52. 2. 2 ~ '54. 2. 2

<건립개요>

건 립 : 육군 제8675부대 부대장 중장 김태섭

후 원 : 속초시, 시장 홍순호

조 각 : 관동대학교수 오세원

글 씨 : 양양군수 정 명시

## 편집후기

---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속초 지역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세기 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청초호수(靑草湖水)를 앞에 두고 있는 조양동 유적은 우리나라 선사(先史)시대 가운데도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발견된 움집터와 유물이 이것을 입증한다. 이렇게 시작된 속초는 조선시대까지 양양도호부에 속해 있었고 1942년 속초읍으로 개편된 이후 1963년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와우형(臥牛形)을 지니고 있으며 속초 팔경을 비롯하여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은 옛날부터 많은 시인과 묵객을 불러들였고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설악산에 위치한 신흥사는 신라시대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사찰로 많은 유물을 간직하고 있으며 지금은 부도군이 형성돼 문화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계조굴과 비선대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각자(刻字)와 선생안(先生案)이 산재해 있어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속초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1991년 <속초시지>에 이어 2005년 <속초시사>가 발간되어 체계적인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속초의 금석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조사가 되어있더라도 부분적인 정리에 머물러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이에 속초향토사연구회에서는 2년 간에 걸쳐 속초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을 조사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사는 설악산 비선대, 계조굴, 신흥사 부도군, 설악동을 비롯한 속초 전역에 산재한 각자와 비문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과 탁본을 병행하여 사료화하는 작업이었다. 조사와 답사는 직접 현지에 가서 작업하는 방식이었으며 자료 정리는 종류와 지역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선생안의 인물에 대한 행적 설명은 <조선왕조실록>에 게재된 인물을 중심으로 하였고 실록에 나오지 않는 선생안은 사진 자료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옛 선인들의 풍류와 정취이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찾아 그것을 즐기면서 이름 한자 시 한 구를 남기려는 멋스러움이 새삼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은가 한다. 때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글씨만 보내어 석공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니 더욱 그 심정을 짐작할 만하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오랜 세월이 흐른 관계로 사료의 마모가 많이 진행되어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비문이 총탄에 의해 훼손된 것이 많이 있어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 또한 인물의 행적을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고 일부 비문은 원문과 해석을 실지 못해 다음 기회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번 작업이 다름대로 속초의 금석문을 정리한다는 의미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미비한 점은 좀 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둔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위해 도와주신 속초시와 속초문화원, 그리고 함께 고생한 향토사연구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 참고 : 조선시대관직

품 계	문 관	무 관	지 방 직	현 대
정 1 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도제조	영사 도제조 대장		국무총리
종 1 품	좌찬성 우찬성 판사 제조	판사		부총리
정 2 품	지사 판서 좌참찬 우참찬 대제학	지사 제조 도총관		장관 차관 본부장 대장 도지사
종 2 품	동지사 참판 상선	동지사 부총관	관찰사 부윤 병마절도사	차관보 중장
정 3 품	참의 직제학	첨지사 별장	목사 병마절제사	관리관 소장
종 3 품	집의 사간	대호군 부장	도호부사 병마첨절제사	이사관 국장 준장
정 4 품	사인 장령	호군		부이사관 대령
종 4 품	경력 첨정	경력 부호군 첨정	군수 병마동첨절제사	중령
정 5 품	정랑 별좌 교리	사직		서기관 소령 군수
종 5 품	도사 판관	도사 부사직 판관	도사 판관 현령	부군수
정 6 품	좌랑 별제			사무관 대위 면장
종 6 품	주부 교수	부장 수문장 종사관	찰방 현감 교수 병마절제도위	
정 7 품	박사	사정 참군		주사 계장 중위
종 7 품	직장	부사정		
정 8 품	저작	사맹		주사보 소위 준위
종 8 품	봉사	부사맹		
정 9 품	부봉사 정자 훈도	사용		서기 상사 중사
종 9 품	참봉	부사용 별장		서기보 하사

펴낸이 노광복  
펴낸곳 속초문화원  
엮은이 속초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박명선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손병섭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양양여자중학교 교사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인제고등학교 교사

편집 및 찍은 곳 강원기획  
인쇄일 2010년 12월 20일  
발행일 2010년 12월 30일  
주 소 우 217-010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  
전 화 033) 632-1231, 639-2439  
전 송 033) 632-1241  
홈페이지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전자우편 [sc2439@sokcho.org](mailto:sc2439@sokcho.org)

이 책은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재단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저작물로  
일부 글과 사진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